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공학석사학위논문

현대 매트빌딩의 공간구현 방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y of space formation of the modern mat-building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이 준 구

현대 매트빌딩의 공간구현 방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y of space formation of the modern mat-building

지도교수 최 두 남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이 준 구

이준구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현대 매트빌딩의 공간구현 방식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최 두 남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이 준 구

본 연구에서는 근대의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건축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근대건축에서 상실한 만남과 경험, 이들을 통한 커뮤니티와 장소성의 형성에 초점을 맞춘 팀텐의 매트빌딩을 고찰하고, 현대 매트빌딩으로 분류되는 건물군에 대하여 과거의 매트빌딩에 대한 차별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팀텐이 마지막 CIAM 회의에서 상정한 군집, 이동성, 변화와 확장, 도시의 건축이라는 주제는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 범주에 맞추어 팀텐의 이념과 언술을 분석함으로서 이들이 언급하고 있는 주제어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군집은 기능적으로 구성된 거대한 매스에 대한 반발로써, 이러한 매스가 야기하는 개인화와 고립화를 극복하고 거주자 중심의 밀도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한다는 이념을 표현한다. 이동성은 이동하는 와중에 만남과 사건을 통해 경험을 야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군집과 이동성이 변화하고 확장하여 도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서의 건축을 제안하는 것이 도시의 건축이라는 명제에 담긴 내용이다.

이를 기반으로 매트빌딩의 이념을 계승하는 현대건축들을 단위공간과 그 구성방법, 네트워크, 도시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과거 매트빌딩의 특성들이 현대 매트빌딩에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과거 매트빌딩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변화하는 사회에 적

응하기 위한 현대 매트빌딩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들은 변화, 관입, 통합을 통하여 과거 매트빌딩에서 보여주던 공간 경험과 특성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변화를 통한 새로운 공간의 구현은 단위 공간의 형태가 다양화되거나 단위공간과 중간영역의 프로그램의 위치가 역전되면서 기존의 매트빌딩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공간경험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관입을 통한 새로운 공간의 구현은 매트를 아우르는 그리드와 같은 규칙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관입하면서 불규칙적인 벽과 공간을 형성하여 새로운 경험을 이끌어내는 것을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통합을 통한 새로운 공간의 구현은 경계가 사라지거나 희미해지면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영역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으로써, 유동적으로 형성되는 판 형태의 인프라스트럭처와 결합하여 적층되는 건축이 필연적으로 담지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현대 매트빌딩은 과거 팀텐의 매트빌딩의 이념과 방법론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공간을 구현함으로써 다양한 공간경험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현대적 매트빌딩의 사례가 기존 연구에서 현대적 매트빌딩으로 선정된 것을 분석했다는 점으로써, 폭넓은 현대건축에서 매트빌딩의 사례를 포괄적으로 고찰하지 못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현대적 매트빌딩과 같은 사례를 공유하는 유사한 건축개념에 대한 비교연구도 다각화되는 현대건축의 양상에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과제로서 폭넓은 사례분석을 통한 현대 매트빌딩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유사한 건축개념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팀텐, 매트빌딩

학　번: 2011-20607

목 차

제 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대상

제 2장 매트빌딩의 목적과 의미 검토

2.1. 팀텐의 등장배경

2.1.1. CIAM의 등장

2.1.2. CIAM의 한계

2.1.3. 팀텐의 등장과 이념

2.2. 팀텐의 이념 분석

2.2.1. 군집: 프로그램의 혼합과 중간영역

2.2.2. 이동성: 경험의 장으로서의 네트워크

2.2.3. 군집과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장을 통한 도시의 구축

2.3. 매트빌딩에서 나타나는 팀텐 이념의 건축적 특징

2.3.1. 매트빌딩의 구성요소에서 나타나는 특징

2.3.2. 매트빌딩의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특징

2.3.3. 매트빌딩에서 나타나는 도시와의 관계

2.4. 팀텐의 한계와 시사점

제 3장 현대 매트빌딩 분석

3.1. 단위공간의 구성방식 분석

3.1.1. 단위공간의 독립적 구성

3.1.2. 매트의 분절을 통한 단위공간의 구성

3.1.3. 단위공간의 약화를 통한 매트의 형성

3.2. 보이드와 중간영역 분석

3.2.1. 독립적 공간으로서의 커뮤니티 공간

3.2.2. 단위공간의 조합 사이로 형성되는 커뮤니티 공간
3.2.3. 통합된 커뮤니티 공간
3.3. 현대 매트빌딩의 네트워크 분석
3.3.1. 다양한 동선의 형성
3.3.2. 동선과 영역의 교차와 연결
3.4. 현대 매트빌딩의 도시성 분석
3.4.1. 주변 환경과의 연계
3.4.2. 도시공간으로의 확장

제 4장 현대 매트빌딩의 특성
4.1. 변화를 통한 새로운 공간의 구현
4.1.1. 단위공간의 다양화
4.1.2. 영역의 반전을 통한 공간의 재해석
4.2. 관입을 통한 새로운 공간의 구현
4.2.1. 관입하는 요소에 의한 새로운 공간의 형성
4.2.2. 수직적 보이드의 관통을 통한 공간의 통합
4.3. 통합을 통한 새로운 공간의 구현
4.3.1. 흐려지는 경계를 통한 공간의 통합
4.3.2. 선에서 면으로 발전하는 인프라스트럭처
4.4. 건물 내부에서 나타나는 도시성

제 5장 결론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1] 현대적 매트빌딩 선행사례 정리 ····· 3-4
[표 2] CIAM의 개최지와 의제 ····· 7
[표 3] 매트빌딩 개념의 건축적 연관성 ····· 21
[표 4] 팀텐의 매트빌딩의 건축적 특성 ····· 37
[표 5] 분석틀 설정 ····· 42
[표 6] 단위공간의 구성방식 ····· 43
[표 7] 현대적 매트빌딩 분석 ····· 69

그 림 목 차

[그림 1] 르 꼬르뷔제의 빛나는 도시 ····· 8
[그림 2] 스미슨 부부의 Urban Re-identification Grid ····· 11
[그림 3] 10세기 초 이슬람 전통시장(좌)와 팀텐의 쿠웨이트 도시-형태 스터디(우) ····· 18
[그림 4] 스미슨 부부의 가로 경험 다이어그램 ····· 18
[그림 5] 골든 레인 하우징 계획안 ····· 19
[그림 6] 골든 레인 하우징 계획안: 다양한 수준의 교류를 보여주는 스케치 ·· 20
[그림 7] 우즈의 줄기(Stem) 이론 스케치 ····· 21
[그림 8] 암스테르담 고아원 전경 ····· 24
[그림 9] 암스테르담 고아원: 단위 모듈의 대각선 연결 ····· 24
[그림 10] 프랑크푸르트 도심계획안(상)과 베를린 자유대학(하) ····· 25
[그림 11] 암스테르담 고아원: 중정에 위요감을 형성하는 L자형과 T자형의 단위 모듈 ····· 26
[그림 12] 암스테르담 고아원: 내부-캐노피-중정으로 이어지는 전이공간 ····· 27
[그림 13] 꼴레대학 기숙사 평면도 ····· 28
[그림 14] 꼴레대학 기숙사 전경 ····· 28
[그림 15] 꼴레대학 기숙사: 공동성과 개별성이 동시에 드러나는 복도 ····· 29

[그림 16] 파스투르 교회: 동선의 일부에 일시적으로 커뮤니티가 생성되는 공간(좌)와 중앙동선 전경(중, 우) ····· 29
[그림 17] 프랑크푸르트 계획안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에 따른 모듈의 변화 · 30
[그림 18] 마테오티 하우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단위주거의 변화 ····· 31
[그림 19]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표현된 순환동선과 관통동선 다이어그램 ····· 32
[그림 20] 프랑크푸르트 도심 계획안에서 표현된 순환동선과 수직동선 다이어그램 ····· 32
[그림 21] 마테오티 하우징: 매스가 만들어내는 요철 ····· 33
[그림 22] 마테오티 하우징: 가로에서 다양한 관계가 표현되는 단면도(좌)와 풍경(우) ····· 34
[그림 23] 베를린 자유대학: 동선과 중정이 교차되며 경험을 형성하는 다이어그램 ····· 35
[그림 24] CIAM 이후 실험적 건축그룹(GEAM, Archigram, Metabolism) ····· 39
[그림 25] 크로아티아 지중해 병원계획에서 나타나는 규칙적인 단위공간의 반복 ····· 44
[그림 26] 카나자와 미술관에서 나타나는 단위공간의 독립적 구성 ····· 45
[그림 27] 크로아티아 현대미술관에서 나타나는 보이드의 독립적 구성 ····· 46
[그림 28] 넥서스 월드 집합주거 단위주거의 독립적 구성 ····· 47
[그림 29] Villa VPRO의 매트 내외부에서 형성되는 프로그램 ····· 47
[그림 30] 매트를 분할하는 EDA 집합주거의 단위공간 구성 ····· 48
[그림 31] 매트를 분할하는 Patio House의 단위공간 구성 ····· 49
[그림 32] 아가디르 콤플렉스의 호텔부에서 나타나는 밀집된 객실이 형성하는 매트 ····· 50
[그림 33] EPFL 러닝센터 평면 ····· 51
[그림 34] EPFL 러닝센터: 통합적으로 인식되는 내부 ····· 51
[그림 35] 아가디르 콤플렉스 하부 매트의 도면(좌)와 모형(우) ····· 52
[그림 36] 크로아티아 지중해 병원계획에서 나타나는 독립적 커뮤니티 공간(회색) ····· 54
[그림 37] 크로아티아 지중해 병원계획: 커뮤니티 공간 투시도 ····· 54
[그림 38] 카나자와 미술관에 나타나는 중정(실선)과 포이어(점선) ····· 55
[그림 39] 카나자와 미술관: 외부공간의 연속이자 내부공간으로 인식되는 전이

적 특성의 포이어 ····· 56
[그림 40] 넥서스 집합주거에서 나타나는 1층의 공유공간(좌)과 수직적 보이드(우) ····· 57
[그림 41] EPFL 러닝센터: 통합된 내부공간 ····· 58
[그림 42] 매트 하부를 통해 통합되는 EPFL의 외부공간 ····· 59
[그림 43] EDA 집합주거 하부에 형성되는 외부공간 ····· 59
[그림 44] EPFL 러닝센터에서 나타나는 동선요소 ····· 61
[그림 45] 상호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포이어를 통한 순환동선(굵은 선)과 내부동선(가는선), 그리고 입구(점선) ····· 62
[그림 46] Valencia 대학강의동의 모형(좌)와 동선체계(우) ····· 63
[그림 47] Villa VPRO의 커뮤니티 공간 ····· 64
[그림 48] EPFL 러닝센터의 연계를 설명하는 컨셉 다이어그램 ····· 66
[그림 49] 아가디르 콤플렉스:
주변 지형과의 연속성이 표현된 컨셉 다이어그램 ····· 67
[그림 50] 그리드를 기준으로 다양한 단위공간을 형성하는 카나자와 미술관(좌)과 Patio house(우) ····· 73
[그림 51] EDA 집합주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단위주거의 형성 ····· 73
[그림 52] 대지선의 영향을 받은 EDA 집합주거 내의 벽 ····· 73
[그림 53] Valencia 대학강의동의 매스의 형태와 배치를 규정하는 세 종류의 축선 ····· 74
[그림 54] 크로아티아 현대미술관에서 나타나는 보이드 영역의 반전 ····· 75
[그림 55] Patio House의 관입요소(점선) ····· 76
[그림 56] 아가디르 호텔의 관입요소(실선) ····· 77
[그림 57] 넥서스 월드 집합주거의 경험을 통합하는 수직적 보이드 ····· 78
[그림 58] 프로그램을 규정하는 경계가 없거나 투명하게 처리되어 있는 EPFL 러닝센터 ····· 79
[그림 59] 요코하마 페리 터미널 ····· 80
[그림 60] Villa VPRO에서 단절과 연속이 동시에 표현되는 부분 ····· 81
[그림 61] 크로아티아 현대미술관의 도시와의 연계 개념 다이어그램 ····· 82

제 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대상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근대건축에 대한 비판과 함께 팀텐이 천명한 매트빌딩의 사회적 이념은 근대건축에서 상실한 만남과 경험, 이들을 통한 커뮤니티와 장소성의 형성이었다. 군집, 이동성, 변화와 확장, 도시의 건축으로 대표되는 이들은 당대 보편적이었던 공간의 기능적 구성에 대한 반기를 들었고, 결과적으로 CIAM의 해체를 이끌어 다양한 건축이 발현될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받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주장했던 이념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한동안 유보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후에도 가장 경제적이고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건축수단인 근대적 개념의 건축양식을 통한 건설이 지속되었다. 이에 오늘날 팀텐이 고민했던 커뮤니티와 장소성의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여러 가지 건축적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사전에 이 문제를 고민한 팀텐의 이념과 방법론이 오늘날의 건축에 대해서 대안은 아니더라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팀텐에 대한 분석은 형태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일례로 장용순은 그의 논문에서 과거의 매트빌딩의 특징인 군집, 이동성, 성장과 발전, 도시의 건축, 단위와 차이의 반복, 다층도시, 교통인프라시스템, 네트워크, 리좀, 미완결성, 확장성과 가변성, 변화하는 부분과 변화하지 않는 부분, 근대적 조닝의 거부 등의 항목을 들어 현대적 매트빌딩과 과거 팀텐의 매트빌딩과의 물리적 차이를 OMA와 MVRDV, SANAA의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1]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도시에서의 순환의 문제와 맥락의 문제로 매트빌딩을 보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형태적인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에 논의가 한정되어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매트빌딩의 의의는 근대건축과 근대도시계획에서 놓친 도시적 경험과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재조명했다는 점에 있다. 단지 커뮤니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그것의 건축 및 공간적인 해법을 탐구했다는 측면에서 팀텐의 건축적 방법론이 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기보다는 이들의 구현방식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팀텐의 매트빌딩은 이념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

1) 장용순, OMA, MVRDV, SANAA에 나타난 매트-빌딩의 영향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1

들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스터디과정 중 하나이자 구현방식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매트빌딩을 재차 분석하고, 매트빌딩을 바라봄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형식의 문제를 벗어나서, 당대의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제시한 건축적 이념이자 주장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고, 다시 부활한 매트빌딩이라는 유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과거의 매트빌딩과 차별화를 이루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대상

논문의 사례조사는 선행 논문에서 현대적 매트빌딩이라고 선별한 작품들을 근거로 진행했다. 스탠 앨런(Stan Allen), 티모시 하이드(Timothy Hide), 야스민 애런(Yasmin Eren), 장용순 등의 선행연구 사례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통하여 현대 매트빌딩의 사례를 수집하였고, 추가적으로 현대 매트빌딩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타 건축가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사례의 선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현대 매트빌딩이라고 평가받는 건물들을 망라한 것 중에서 커뮤니티의 형성을 위한 영역화와 경험의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건물을 선별하여, 과거의 매트빌딩이 보여주는 건축적 특성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고 이에 관해 고찰을 하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다.

건축가	작품	년도	용도	저자
Bernard Tschumi	라 빌레트 공원	1982	공원	Y. Eren, T. Hyde
Eduardo Arroyo	Desierto 광장 계획	1999	공원	장용순
SANAA	EPFL 러닝 센터	2005	교육	Y. Eren
SANAA	알미르 문화회관	1998	문화	장용순
Cero9	UIB 도서관	2003	교육	장용순
Enric Miralles	Valencia 대학강의동	1991	교육	장용순
FOA	요코하마 페리 터미널	1995	교통	Eren, Allen
FOA	부산 고속철도 터미널	1996	교통	장용순
OMA	알미르 도시 계획	1995	도시	장용순
OMA	레 알 도시 계획	2003	도시	장용순

NJIRIC+NJIRIC	크로아티아 지중해 병원 계획	2002	병원	장용순
MVRDV	파리 세겡 섬 현대미술관 계획	2001	문화	장용순
SANAA	카나자와 미술관	1999	문화	장용순
Florian Beigel	나라 컨벤션 센터	1991	문화	장용순
Herzog & de Meuron	바르셀로나 포럼	2004	문화	장용순
NJIRIC+NJIRIC	크로아티아 현대미술관	1999	문화	장용순
MVRDV	BMW 이벤트센터	2001	문화	장용순
MVRDV	VPRO	1997	업무	Eren, Hyde, Allen
SANAA	저층 집합주거	2002	주거	T. Hyde
MVRDV	Patio House	1992	주거	T. Hyde
OMA	넥서스 월드 집합주거	1991	주거	T. Hyde, S. Allen
MVRDV	이펜부르그 집합주거 계획	1999	주거	장용순
MVRDV	플라인 빌리지 집합주거 계획	1999	주거	장용순
SANAA	EDA 집합주거 계획	2002	주거	장용순
OMA	아가디르 콤플렉스	1990	복합	T. Hyde
Peter Eisenman	CCD 현상설계안			T. Hyde
SANAA	오카미 미디어 스튜디오	1996	문화	S. Allen
Eduardo Arroyo	IRUN 다목적 스포츠 콤플렉스	2001	복합	장용순
UN studio	Rubber Mat 프로젝트	1995	기타	장용순

표 1 현대적 매트빌딩 선행사례 정리 (사례분석대상은 회색으로 표시)

따라서 명확한 기능을 산정하지 않는 공원이나 매트빌딩의 개념을 표현함에 있어서 추상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도시적 규모의 계획안들을 배제하고, 건축으로서의 규모와 구체적 개념의 표현을 보여주는 대상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선별의 기준은 비도시적 규모의 계획안으로써, 다양한 용도에 걸쳐 매트빌딩이 말하고 있는 커뮤니티와 경험이 구현된 방식에 대한 현대적 변용을 보여주되, 건축적 규모와 방식에 한정해서 그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작품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특정 작가나 유형에 편향되지 않은 전반적인 매트빌딩으로서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제 2장 매트빌딩의 목적과 의미 검토

2.1. 팀텐의 등장배경

2.2. 팀텐의 이념 분석

2.3. 매트빌딩에서 나타나는 팀텐 이념의 건축적 특징

2.4. 팀텐의 한계와 시사점

2.1. 팀텐의 등장배경

팀텐(Team 10, Team X)의 활동은 그 이전의 CIAM의 활동에 대한 반발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팀텐을 살펴보기 이전에 CIAM의 활동과 이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는 것은 팀텐이라는 그룹이 무엇에 반발해서 어떤 것을 추구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요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2.1.1. CIAM의 등장

국제현대건축회의(Congres Internationaux d'Architecture Moderne: CIAM)은 1928년 6월에 창단되었다. 유럽의 선도적인 건축가 24인은 스위스의 라 사라(La Sarraz)에 모여 건축가 르 꼬르뷔제(Le Corbusier)와 평론가 지그프리드 기디온(Sigfried Giedion)이 기초하여 제안한 '현대 건축이 가야 할 길'을 채택하였고, 이는 후에 CIAM 1, 라 사라 선언으로 알려지게 된다.[2] 이 선언은 국제적인 계획에 따라 정신적, 물질적인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상호 제휴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 목적으로 건축과 도시계획에 있어서 사회, 과학, 윤리 및 미학적 개념과 일치하는 환경을 창조하는 것, 그에 따른 인간의 정신 및 물질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 그리고 커뮤니티의 생활과 통일된 개성의 개발과 인간 활동 및 자연환경을 조화·육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3]

이후 회차가 거듭되면서 합류하는 건축가들이 증가하고, 이들의 지역과 영역이 다양해지면서 당대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건축가 모임으로 발전하였다.[4] 초기 CIAM 총회에서 건축가들은 그 출발의 동기가 되었던 주택문제를 중심주제로 삼았으나, 점차적으로 주택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와 연관되는 도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복잡한 도시문제를 바

---

2) 이희봉, Team 10의 CIAM 탈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 건축역사연구 16호, 1998

3) 남지현, CIAM 이후 아방가르드 도시주거이론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를 통한 성장개념' -Team X, GEAM, Archigram의 '자율성'과 '가변성'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론, 2004

4) 북미, 아프리카, 나아가서는 아시아까지 그 참여도와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CIAM은 명실상부한 당대 현대 건축을 이끌어가는 주요 집단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로잡기 위한 원칙을 세우게 된다.[5)]

회차	연도	개최지	의제
1	1928	라 사라(La Saraz), 스위스	창립 라 사라 선언 채택
2	1929	프랑크푸르트(Frankfurt-am-Main), 독일	저소득층 주거
3	1930	브뤼셀(Brussels), 벨기에	단지계획의 합리적 방법
4	1933	아테네(Athens), 그리스	기능적 도시 아테네헌장 채택
5	1937	파리(Paris), 프랑스	건축의 공업화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휴회			
6	1947	브리지워트(Bridgewater), 이탈리아	유럽의 부흥
7	1949	벨가모(Belgamo), 이탈리아	정주환경
8	1951 1952	호데스든(Hoddesdon), 이탈리아 시그투나(Sigtuna), 스웨덴	도심 9차회의 주제선정
9	1953	엑 상 프로방스(Aix-en-Provence), 프랑스	인간정주환경
10	1956	드브로브닉(Dubrovnik), 크로아티아	해비타트(Habitat)
	1959	오테를로(Otterloo), 네덜란드	팀텐 모임

표 2 CIAM의 개최지와 의제

라 사라 서문에서 보듯, CIAM의 건축가들은 사회에 대한 전문가로서 과거를 차치하고 현재의 삶에 맞는 새로운 건축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우선 CIAM의 건축가들은 합리화와 표준화를 통하여 경제적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이것이 과거의 수공예적 건축과는 다른 이 시대의 건축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새롭게 대두되는 기계문명은 건축과 같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건축 또한 이를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CIAM의 건축가들이 천명한 또 하나의 개념은 기능적 질서이다. 이 개념은 과거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유기적이고 무질서한 도시구조와 확장을 지양하고, 도시를 기능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CIAM 4차 회의에서 채택된 아테네 헌장에서 이들은 도시를 네 가지 기능, 즉 주거, 업무, 오락, 교통으로 분리하여 과거의 무질서로부터 기능적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건축적 작품으로는 르 꼬르뷔제의

5) 김성곤, 서양건축사, 기문당, 1996

‘빛나는 도시’나 ‘300만을 위한 도시’가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물로는 찬디가르(Chandigarh)와 브라질리아(Brasilia)를 들 수 있다. 이 도시들은 개체보다는 전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인체와 비행기의 형태적 분석이론을 도입하였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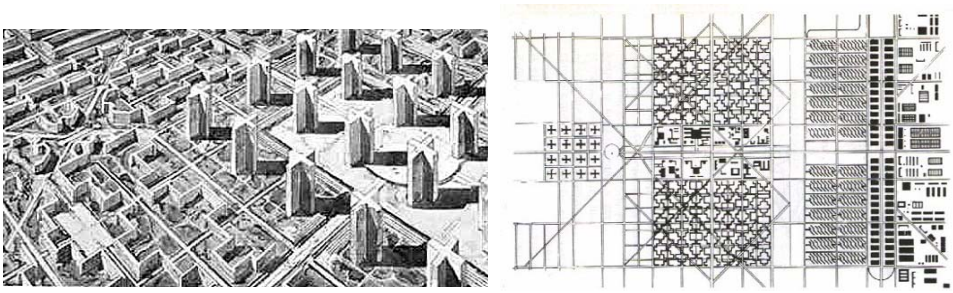


그림 1 르 꼬르뷔제의 빛나는 도시

이들의 도시 및 건축이론은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전 유럽이 파괴된 도시를 재개발하고 군인과 피난민을 위한 대량의 주거를 건설해야 하는 환경에서 빛을 발하였다.[7)] 이들의 소위 ‘녹지 위의 고층 집합주거’는 대규모의 도심 건설, 주거 건설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적합한 방법론이었다. 전후의 시민들에게 공급하기에 위생적이었고, 정부가 주도해서 신속한 건설을 하기에도 적합했다. CIAM 방법론을 이용하여 1945년 이후 1960년대까지 대규모의 주택단지가 건설되었으며,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서 근대 건축가들이 이전에 제안했던 여러 가지 건축적 언어와 방법론이 아무런 제동 없이 건물과 도시에 실험·적용되었다.

2.1.2. CIAM의 한계

1953년 CIAM은 결정적으로 분열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 CIAM 내의 젊은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견의 등장은 7차 CIAM부터 있어왔으나, 이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9차 CIAM이다. 기존의 CIAM에 정면으로 비판을 제기한 젊은 건축가들은 10차 회의에서 비로소 CIAM으로부터의 독립을 천명하고 오테를로(Otterloo)에서 독립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CIAM의 붕괴와 함께 팀텐이라는 이

6) 이희봉, Team 10의 CIAM 탈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 건축역사연구 16호, 1998
7) 손세관,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열화당, 2000, p315

름을 얻었다.

이들이 반박하고자 했던 구 CIAM의 교조적인 건축 및 도시이론의 기저에는 인간에 대한 기계적인 이해가 그 바탕에 있다. 즉, 근대 건축가들이 이해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 요구에 대한 생각들은 매우 단순하고 명쾌했다. 르 꼬르뷔제는 인간에 대해서 '신체기관과 그 기능이 같으므로 모든 인간의 요구는 같은 것'이라고 평했으며, 이에 의거해서 '인간의 기본적 요구는 공간의 효용성, 안락함, 그리고 적절한 설비를 의미하는 것'[8]이라고 단정했다. 이는 르 꼬르뷔제가 모든 인간을 같은 생물학적 욕구를 가지는 개체로 파악하고 있으며, 인간의 문화적 특성이나 개체성을 미처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로피우스의 경우 '적절한 음식과 따뜻한 환경 이외에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햇빛과 공기, 그리고 공간적 여유가 필요하다'[9]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정주환경에 대한 필요요소로서 물리적 환경만을 그 대상으로 지목하며 사람들의 요구를 지나치게 축소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CIAM의 일률적인 생각은 6차 회의에서 이들의 작업을 비교·분류할 틀로서 제시했던 CIAM 그리드(Les grilles CIAM)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이전에 국제회의에서 발표했던 모든 작업들을 분석, 평면, 현실이라는 항목에 있어서 모두 4행의 표 안으로 통합하려 하였다.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한 빛과 공기, 녹지를 제공해주고자 했던 근대의 이상도시는 이러한 그리드를 통해서 규격화되었고, 기계화되었다.

이러한 근대건축에 대한 비판은 여러 각도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는 근대건축의 대규모 블록과 고층주거, 지나치게 큰 길, 넓은 광장들과 옛날 도시들의 작은 주거군, 길에 면한 작은 상점들을 비교하며 근대건축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그리고 예전의 건축이 얼마나 활기를 불러일으키는지를 사회적 실험과 관찰을 통해 적나라하게 비판하였다.[10] 브롤린 또한 그의 저서 '근대 건축의 실패'에서 잘못된 실체를 대상으로 하는 근대건축의 허구성을 지적한다.[11]

---

8) Le Corbusier, Towards a New Architecture
9) Walter Gropius, Sociological promises for the minimum dwelling of the urban industrial population scope of total architecture
10) Jane Jacobs, 유강은 역,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그린비, 2010
11) Alison Smithson, 이경찬 역, Team 10 primer, 태림문화사, 1991

고전적 형태의 주거 집단, 가로, 광장, 녹지 등을 통해서는 환경과 인간을 다시 일체화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표출하였던 사회적 실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CIAM은 기존에는 없었던 정주환경에 대한 도식적인 이해를 천명하고 시도하여 이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세계적으로 보급한 성과를 이루기는 했지만, 도시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를 물리적 환경만으로 한정하여 실제 거주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적·문화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삶의 평안과 풍요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다.

2.1.3. 팀텐의 등장과 이념

팀텐은 그들의 논의에 가장 오랫동안 참여했던 일곱 명의 사람[12]을 핵심 구성원으로, 그리고 이들과 만남과 글을 통해 건축적 견해를 나누고 공유하던 많은 사람들[13]을 통칭해서 일컬어 부르는 이름이다.[14] 이들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장점과 약점에 연연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를 잘 알고 있는 하나의 가족'이라고 표현하며, 주기적으로 가지는 자신들의 일련의 회합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아이디어들, 즉 보편적 본질에 대한 아이디어들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적용하려는 시도들'을 교환하고 개발하며 토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서로에게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15] 이러한 교류는 1956년에

---

12) 바케마(Jaap Bakema), 칸딜리스(Georges Candilis), 카를로(Giancarlo De Carlo), 반 아이크(Aldo van Eyck), 스미슨 부부(Alison and Peter Smithson)그리고 우즈(Shadrach Woods)

13) 코드리치(José Coderch), 어스킨(Ralph Erskine), 구아데스(Pancho Guedes), 거츠만(Rolf Gutmann), 그런(Geir Grung), 한센(Oskar Hansen), 피에틸라(Reima Pietilä), 폴로니(Charles Polonyi), 리차드(Brian Richards), 솔탄(Jerzy Soltan), 운저스(Oswald Mathias Ungers), 보엘커(John Voelcker), 베베르카(Stefan Wewerka)

14) Frederic P. Miller, Agnes F. Vandome, John McBrewster, Team 10 : congrès international d'Architecture moderne, urbanism, Bagnols-sur-Cèze, Jaap Bakema, Giancarlo De Carlo, Aldo van Eyck, Alison and Peter Smithson, Alphascript Publishing, 2011
반면 앨리슨 스미슨의 Team 10 primer에서는 주요 구성원으로 바케마, 반 아이크, 스미슨 부부, 우즈, 카를로, 코데르치, 솔탄, 베베르카, 어스킨을 꼽고 있다.

15) Alison Smithson, 이경찬 역, Team 10 primer, 태림문화사, 1991

있었던 총회를 계기로 정기적인 모임으로 발족됐으며, 이는 이후 1981년 팀텐의 핵심 구성원이었던 바케마(Jaap Bakema)의 사망 시까지 이어졌다.

르 꼬르뷔제를 위시한 CIAM의 강령에 반대하며 등장한 팀텐은 기존의 양식이 만들어내는 건축을 인간의 삶을 담아내지 못한 실패한 건축, 즉 폐쇄미학이라고 공격했다. 이들은 폐쇄미학은 프로그램으로 건물 각부를 정의하여 자기 완결적인 형태체계로 설계되며, 의심, 불확정, 부정확은 배제되고, 따라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즉, 기존의 폐쇄미학을 답습하는 기능적인 도시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 정서라 할 수 있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빼앗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도시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에 대응하여 개방미학을 제안했는데, 이는 확실한 것과 의심스러운 것 사이의 왕복운동이라고 정의하고, 건물은 해답이 아니라 개인의 다양성과 활동의 우발성을 보장하고 '일의 벌어짐'을 추구하는, 즉 잠재적 움직임을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16]

팀텐의 멤버들이 주장하는 CIAM 그리드는 그들의 선배들이 앞서 제시했던 그리드가 보여줬던 도시나 건축의 유형, 특징에 따른 엄격한 조직적 구분을 표명하는 것 대신에 도시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적인 활동과 커뮤니티의 생성과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CIAM 안에서 이들의 관심이 모두에게 동일한 환경적 이득을 가져다주기 위해 일률적으로 생활을 규정하는 것에서 다양한 활동과 일시적인 사건이 존재하는 생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 스미슨 부부의 Urban Re-identification Grid

이들이 주장하는 건축은 CIAM의 마지막 회의인 10차 회의의 의제, 즉 군집, 이동성, 변화와 성장, 도시와 건축이라는 키워드로 정리되며, 이를 통해 CIAM에서 드러났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주장의 기저에 있는 가치관은 전

16) 이희봉, 위의 책

체보다는 부분, 고정보다는 변화, 폐쇄미학보다는 개방미학을, 조직보다는 개인을 추구하는 것에 있으며, 이 뒤에는 CIAM이 부정하였던 과거의 건축에 대한 선형 시간을 잇는 역사적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의 건축 및 도시에 대한 이념이 의제로 구체화되었다면, 의제에 대한 건축적 해석이자 제안으로써 매트-빌딩을 들 수 있다. 매트-빌딩이라는 용어는 앨리슨 스미슨(Alison Smithson)의 '매트-빌딩을 어떻게 인지하고 읽을 것인가?(How to recognize and read Mat-building?)'에서 처음 등장하며[17], 매트-빌딩에 대한 모호한 정의와 특징들을 다양한 예와 함께 단편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녀는 매트-빌딩에 대해서 1950년대까지 주류를 이루던 수직적 확장을 모토로 하던 건물군과는 반대로, 도시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매트'형태의 수평적인 도시적 건축형태라 설명하며, 조직을 풍부하게 하는 기능, 개개인의 상호연결, 연대의 긴밀한 패턴,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에 기반을 둔 복잡한 질서를 통해서 새로운 행동의 자유를 구현하는 건축이라고 말하고 있다.

17) Yasemin Eren, A new kind of urbanism for all, P.1.

2.2. 팀텐의 이념 분석

매트 빌딩의 특징은 팀텐 자신이 언급했던 네 가지 의제, 즉 군집, 이동성, 변화와 성장, 도시와 건축에서 시작하여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이 언급했던 네 가지 의제 중 '군집'은 단위 모듈을 설정하여 반복하되, 이를 기능적으로 한정하여 적재하지 않고 적절한 사이 공간을 갖는 군집 형태로 구성하여 사회적 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이동성'은 보행공간의 연속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해 도시공간의 경험이 단편적으로 조각나는 1960년대의 도시현실에 대한 대응책이었으며, 그 특징으로 개방성과 연결성을 들 수 있다. 연결되고 확장되는 매트 빌딩의 특징은 그 자체로 건물을 넘어 도시의 일부분으로 인식되는, '도시의 건축'이라는 의제로 수렴하게 된다. 따라서 매트빌딩의 건축적 특성은 첫째, 단위개체가 반복되고 군집을 이루어 사건의 생성과 수용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둘째, 경험과 관계성을 아우르는 이동성을 갖추는 것, 셋째, 군집과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한 도시의 형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근대주거에서 구 CIAM이 전재했던 공원 위의 주거(Tower in the Park) 개념은 개인 생활의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후 50~60년대의 도시는 폭발적 성장을 맞이하고, 도시적 네트워크는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팀텐은 도시적 건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순환의 문제와 맥락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존의 건축유형이 별다른 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단위유닛이나 프로그램 사이의 상호 연결, 혹은 교차를 건축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결과로 매트빌딩의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 매트빌딩은 자동차나 사람이 보여주는 교통인프라와 순환동선이 건축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써, 오브제와 같은 고층빌딩을 해체하고 대신 변화와 성장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인프라스트럭처의 형태를 띤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표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매트빌딩은 저층의 건물군과, 이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중층적 동선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대지에 넓게 깔리며 매트를 형성하게 된다.

2.2.1. 군집: 프로그램의 혼합과 중간영역

군집개념이 가지는 공간적 의의는 단위공간의 군집화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네트워크가 가시화와,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할 수 있는 사이 공간에 있다. 근대건축의 도시이념이 너무 이상적이고 고정적이어서 새로운 도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었던 것을 살폈던 팀텐은, 도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연속성, 즉 역사성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도시공간과 도시기능이 확대되고 변화함에 따라서 이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엑 상 프로방스에서 열린 9차 CIAM회의에서 스미슨 부부는 그들의 도시구조 발달론을 제시했다. 그들은 거주야말로 도시생활의 패러다임이며, 도시형태는 주거, 도로, 구역, 도시 순서로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주장은 아테네 헌장에 기술된 도시의 사분면을 폐기하고, 개인을 거주 가능한 공간조직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있다. 따라서 팀텐은 구체적인 인간상은 구체적인 공간의 형성을 의미하며, 이는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았다.

> 사람들은 장소와 경우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인간은 건축의 주체인 동시에 객체이기 때문에 건축이 수행하여야 하는 주 임무는 후자(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전자(장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장소의 경우는 현실에 대한 참여를 의미하기 때문에, 장소의 부족현상은 경우의 부족현상을 낳으며, 이는 정체감의 유실, 고립, 좌절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근대 건축에서 나타나듯 프로그램에 따라 공간을 기능적으로 구분함으로써 개인과 도시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팀텐은 개인과 전체에 대한 추상적인 정의에 기반을 둔 근대 도시형성방법인 조닝(Zoning)은 개인과 단체의 구체적인 활동이나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해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18] 이들은 주택, 가로, 가구, 도시는 위계적으로 존재하는 도시의 구성요소들이며, 각 위계 안에서 커뮤니티와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적 장치들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공공시설이나 편익시설이 기능적으로 분류되어 한 곳으로 모일 것이 아니라 주택의 집합 사이에 존재해야 하며, 다시 빈 공간을 두고 산재되어 있는 크고 작은 편익 시설을 포함한 가로의 집합이 가

---

18) 자끄 뤼깡, 구성을 원망한다, p45 재인용
"도시는 조닝에 의한 하나의 그림이나, 공간이나 볼륨에 의한 하나의 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닝에는 기능들을 분리하려고 하고, 그들 간의 관계의 모든 계열을 무시하려 하기 때문이다."

구를 이루기 때문에, 각 위계에 있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절히 혼합할 것을 주문했다.

> 우리가 부분이 전체로 증가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각 형상단계(configurative stage)에 적절한 장소를 제공한다면, 도시 환경은 다시 살기 좋은 곳으로 될 것이다. (중략) 건축은 명확하게 한정된 매개 장소들의 형상(configuration)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이것은 장소와 경우의 견지에서 연속적인 전이나 끝없는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 공간으로부터 다른 공간으로의 전이는 각각에 내제되어 있는 의미 있는 것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진 매개 장소들에 의하여 명확하게 분절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팀텐은 개인과 도시 사이에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매개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들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커뮤니티의 존재를 확인하고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커뮤니티의 일부라는 소속감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통해 근대 건축의 주된 문제점이었던 인간소외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19] 과거의 도시 곳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의 활동과 상호작용에 대한 그리드로 구 CIAM의 그리드를 대체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각각의 도시구성요소의 각 위계에 대응하는 매개공간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10차 CIAM에서 더 공고해져서 나타났다. 그들은 건축에 군집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는 건축이 휴머니즘적 개념을 수용하고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의 건축적 표현이었다. 이는 매트-빌딩이 자연에의 영향을 받은 유기적 형식주의를 넘어서서 집합의 의미, 즉 살아있는 존재들의 연합이자 개인에게는 인간 집단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가치를 부여하는 철학적 가치 또한 지닌다.[20]

단위구성요소의 기계적 변화까지도 생각했던 동시대의 다른 아방가르드 그룹에 비해서 팀텐은 중간영역을 이용한 개념적인 공간의 유연성과 변화가능성을 보여

---

19) 도시 구성요소에 대한 이러한 분석이 처음으로 제안되었을 당시에 건설되고 있던 주거 집단들은 수준 높게 건설되었으며 사회학자들이 제시한 사회적 욕구에도 부합된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의 치명적인 결점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는데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정체성(identity)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Alison Smithson, 이경찬 역, Team 10 primer, 태림문화사, 1991

20) 이냐시 데 솔라 모랄레스, 이종건 역, 차이들: 현대건축의 지형들, Spacetime, 2004

주어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를 구현해보고자 했다. 군집 형성의 방법론적 개념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는 팀텐의 중간영역은 소위 '현관(Doorstep)', 혹은 '사이 공간(in-between)'이라고 지칭[21]하며, 이를 통해 내부와 외부, 대상과 행위를 통합하고, 변화하는 주변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고자 하였다. 즉, 이는 건축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구조를 찾으려는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공간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팀텐의 공간구성방식은 근대적인 도시형성방법인 조닝에 대해 대척점에 서 있다. 서로 다른 기능을 매트 전체에 산개하고, 이들을 중간영역으로 매개하며 네트워크로 엮고 교차하는 방식은 근대적인 조닝의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으며, 기능과 용도의 변화에 대응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2.2.2. 이동성: 경험의 장으로서의 네트워크

앞서 살펴봤듯이 팀텐은 근대 건축가들이 공공공간과 생활공간을 기능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도시공간의 단순화를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혼합된 프로그램을 엮어내는 네트워크를 강조하면서 근대적 개념에서의 가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러한 고민은 이동성이라는 주제로 수렴하게 된다.

팀텐이 주장하는 이동성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 도시에 식별성과 개체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통합이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2] 즉, 이들은 이동성을 커뮤니티의 총체적 개념을 형성하게 하는 요소라고 보았다. 근대건축의 주된 폐해 중 하나인 획일성과 경직성이 나타난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간과하고 도시문제에 단순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며, 따라서 이들이 관심

---

21) Alison Smithson, 이경찬 역, Team 10 primer, 태림문화사, 1991

22) Alison Smithson, 위의 책

"도로체계가 지니고 있는 통합기능이 제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로들이 어떠한 체계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자동차도로가 이러한 체계의 중심요소로 작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곳에서 다른 요소와 관련성을 가지고 적절한 규모로 형성된 도로 체계는 시각적, 상징적 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도시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해준다. 우리는 가로 생활의 '이동성(Mobility)'개념에, 특히 자동차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 강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건축가는 자동차화가 요구하는 새로운 도시 형태에 적합한 건축양식을 발견하는 일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가에게 이러한 면은 단순히 교통체계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이 도시에서 다양한 접촉과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이동성으로 수렴한 것은 일견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알도 반 아이크는 당대의 도시를 평가하기를, 도시는 다양한 종류의 인간적, 기계적, 자연적 운동(Movement)을 토대로 한 복합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으나, 당대 도시들은 인간적 운동에 대해서는 역설적으로 억압되고 있고, 기계적 운동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으며, 자연적 운동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23] 그는 본질적으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보행자이며 보행자가 스스로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적인 문제이므로, 건축가가 임의로 강제해서 불완전한 이동성을 구현하는 한 인간을 억압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즉, 이들에게 이동성은 다양성의 구현을 통한 인본주의적 이념의 또 다른 표현이며, 인간관계의 구조와 조화를 이루는 그들의 이상도시를 구현하는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즈의 경우 이동성을 단순한 이동의 측면, 시간 자체의 변화의 측면, 경제적인 생산과 소비와 분배의 측면, 거주의 측면 등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말하고 있다.[24] 이러한 이동의 특징들이 독립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도시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이동성의 유기적인 조합을 여러 프로젝트에서 실험했다.

즉, 팀텐은 이동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본주의적 이념을 담은 다양성을 표현하는 것과 '이동'의 중의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교류를 담아 마치 중세의 거리나 전통 이슬람 도시같이[25] 사람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임시적이고 순간적인 커뮤니티가 형성

---

23) Alison Smithson, 위의 책

24) Alison Smithson, How to recognize and read mat-building
"건축가에게 이동성은 여러 함축을 가지고 있다. 이동이란 측면에서 이동성은 시속 2마일 반에서 시속 60, 100, 500마일로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시간이란 측면에서 이것은 네 번째 축의 인식을 뜻한다. 예를 들면 짧은 시간 사이클에서의 변화가 있겠다. 경제라는 측면에서는 이것은 빠른 대량 분배를 의미하고, 그것은 곧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잠재성과 일치한다. 주거의 측면에서, 이것은 쉽고, 아무런 의심 없이 자행되는 도시 인구의 근본 없음을 예기한다."

25) Alison Smithson, 위의 책
스미슨 부부는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쿠웨이트 도시형태를 연구하며 이슬람 특유의 도시건축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해왔다. 이러한 관심은 1972년 쿠웨이트 정부청사 설계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설계안을 통해 그들이 사전에 조사했던 이슬람의 건축형식, 즉 단위 셀들의 조직적이지만 느슨한 관계를 실험하고자 했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구현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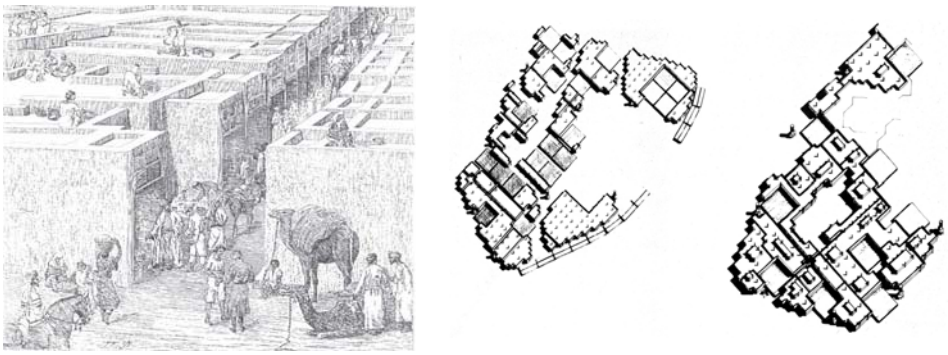


그림 3 10세기 초 이슬람 전통시장(좌)와 팀텐의 쿠웨이트 도시-형태 스터디

경험을 촉발하고 도시의 이벤트를 수용하는 이동성의 측면에서 팀텐은 가로에 주목했는데, 이는 도시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동성의 주된 표현방식이었다. 가로가 가지는 주요한 기능을 타 집단과 상호연계성을 가지는 비독립 집단을 위한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팀텐은, 근대 기능주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가로 개념의 소멸[26]에 대항하여, 가로의 실체가 아니라 가로의 의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가로는 사람들을 일체화시킬 수 있는 집합공간과 사회적 활기가 넘치는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위요성enclosure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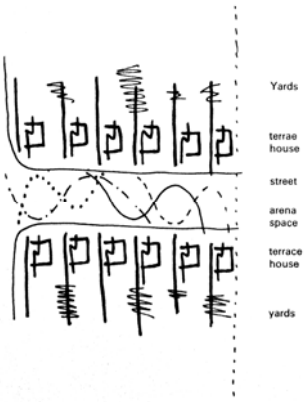


그림 4 스미슨 부부의 가로 경험 다이어그램

"공간에 대한 아랍 감각은 이용자 위에 부드럽게 놓이는 낮은 위요감이다. 전통 건축에서 이것은 기념비적이지 않고, 수많은 정지와 출발, 그리고 특별히 놓은 수준의 연결성을 담보하는 입구 부분에서의 그림자들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시간의 침투를 만든다. 성장과 변화들은 단순한 장소들에서 아직도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셀 구조(출입의 구조)와 사람과 당나귀에 의한 점잖은 서비스가 여기서 일어나야 하는 모든 것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상호변화가능성(혹은 이것의 느슨함)의 매력은 쿠웨이트를 위한 새로운 제안의 성격을 유도한다."

26) 가로를 단순한 이동통로만 보기 때문에 외부나 다른 가정들과의 접촉 기회를 박탈하는 수직적 생활형태를 유도하였다. 또한, 같은 레벨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결여와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비효율성을 조장하여 인접한 이웃 이외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러한 가로가 고층 건물에 삽입되어 건물 내에서 사회적 활동을 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움직임을 노출시킴으로서 건물 안의 이동성을 건축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 방법론으로써 공중가로Street in the air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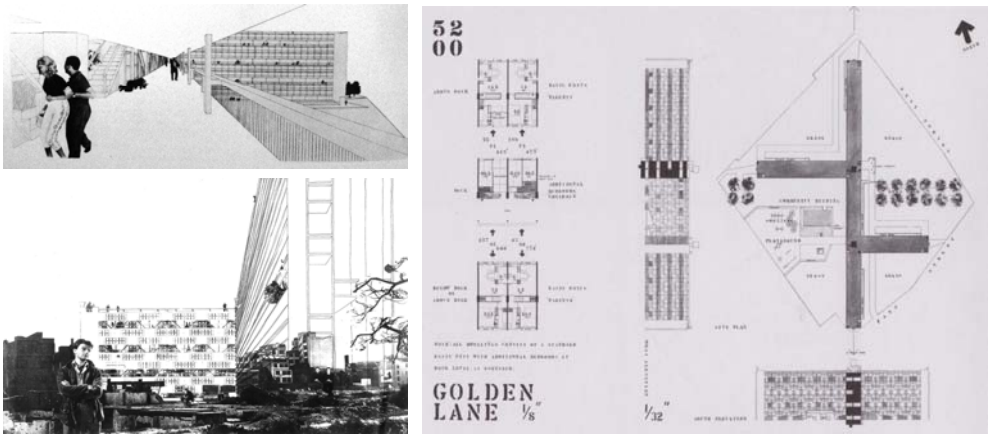


그림 5 골든 레인 하우징 계획안

앨리슨 & 피터 스미슨이 골든 레인 주거 설계경기에 제시한 집합주거는 공중가로 개념을 도입한 계획안으로, 이동 공간 만으로서의 복도가 아니라 가로가 가지는 활동을 건물 중간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개념을 반영하였다. 이 공중가로 계획안에서는 가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한 스미슨 부부는 이를 위해 도시 가로에서 보이는 공간적 요소들을 고층 집합주거에 도입하였다. 우선 2개 층에 걸친 주택의 입구를 하나의 레벨에 몰아서 형성함으로써 영국 전통 도시에서 볼 수 있는 2층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진입양상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증가하게 되는 한 층당 모이는 사람의 밀도를 넓은 폭의 데크를 도입함으로서 단순한 이동공간으로서의 복도를 넘어선 '공중가로'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서 컨셉 단면에서는 2개의 층고를 가지는 가로공간과 상점들이 건물을 관통하며 연결되는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지상부와 옥상에 형성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건물 내부에서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를 표현하였다. 그들이 보여주는 스케치나 콜라주에 나타나는 녹지의 표현 또한 상점과 복층가로와 마찬가지로 가로의 모방점으로서 참고할 만하다.

스미슨 부부는 이 계획안에 대해 교류 활동의 위계성에 기초한 커뮤니티를 제

시한 안이며, 다양한 수준의 교류 활동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한다. (그림6)에서 건물 내에서 공중가로와 연계되어 도시적 수준의 공공성을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을 흰색 배경으로 특별히 표시하여, 이러한 개념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거대 도시에서 용이한 이동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우리는 주거지 공중가로가 설치된 다층 도시를 제안한다. 공중 가로는 작업 공간과 다양한 수준의 교류활동에 필요한 지반요소들Ground Elements과 함께 다층의 연속적인 복합체로 연결되어 있다. 복합적인 인간 교류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절된 연속체는 교류활동의 위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소위 유니테Unite나 근린주구계획Neighborhood planning 개념에서 나타나고 있는 커뮤니티들 사이의 임의적인 고립성과는 대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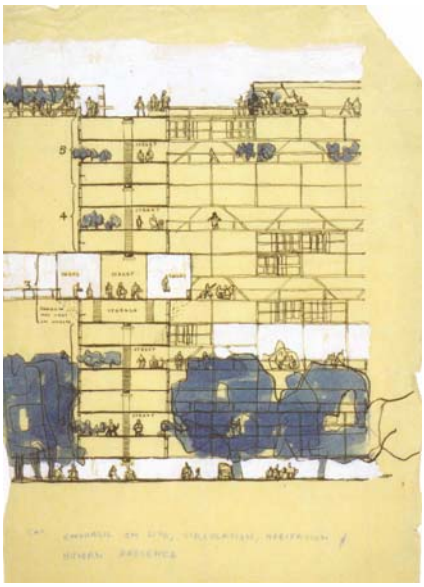


그림 6 다양한 수준의 교류를 보여주는 스케치

여기에서 언급하는 지반요소들은 기존의 가로에 존재하는 장소로서의 가로개념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요소들, 즉 점포, 우체통, 공중전화기 등을 일컫는다. 이러한 물질적 요소들과 더불어 수직적인 동선의 연계와 외부와 면한 가로 등 소위 유니테와 대비되는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이웃에서 나아가서 두 개 층간의 커뮤니티, 나아가서는 외부와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교류활동의 위계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다양한 공공공간의 복합적 형성을 통해 최종적으로 복도가 아닌 가로로서의 기능을 창출해내고자 했다.

2.2.3. 군집과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장을 통한 도시의 구축

팀텐은 10차 CIAM의 세 번째 주제를 성장과 변화로, 네 번째 주제를 도시의 건축으로 선정하면서 건축과 도시에 대한 자신들의 개념을 수립한다.

팀텐의 확장 개념은 앞서 언급했던 군집을 이용한 확장개념이다. 즉,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단위 유닛을 반복적으로 배치함으로서 복잡한 공간을 주변으로 확장하며, 각 공간들은 반 개방적인 내부가로를 통해 내부 공간의 연속선상에 있는 반 외부공간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확장에서 주지해야 할 부분은, 이 군집의 확장은 이동성 항목에서 언급한 총체적 유동성을 유지하면서도, 단위공간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공공공간에서는 선택의 자유를 통한 사용자의 공공적이고 상호교환적인 경험을 발생시키는 이중적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프라이버시와 공공성의 구분은 단계적인 군집의 양상을 통해 매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팀텐의 확장개념은 이동성의 도시적 표현인 인프라스트럭처와 결합하여 팀텐의 도시상과 도시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앞서 보았던 이동성과 확장의 개념의 궁극적인 형태는 도시 전체가 매트-빌딩의 개념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알도 반 아이크가 이야기한 '도시는 커다란 주택이고 주택은 작은 도시이다'[27]라는 언급은 건물과 도시와의 관계가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7 우즈의 줄기(Stem) 이론 스케치

이러한 팀텐의 이념은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상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단위 개체의 군집과 변화, 그리고 성장이 용이하되 이동성을 구현할 수 있는 도시의 기본 구조를 만들면 이를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이념은 1960년 우즈의 줄기Stem 이론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우즈의 줄기이론은 이후 팀텐의 도시형성 방법론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각자의 개인적 성

27) Alison Smithson, 위의 책

향을 서로 인정하는 반교조적 단체인 팀텐 안에서도 다양한 구성원에 의해 다양하게 변용되고 제시되었던 개념이다.

앞서 언급한 팀텐의 이념을 표로 정리해보자면 (표 5)와 같다. 군집이라는 주제는 프로그램의 혼합과 중간영역에 대한 이들의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건축적으로 구성요소와 구성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이동성이라는 주제는 이동통로가 경험의 장으로서 작용해야 한다는 이들의 이념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이는 건축적으로 가시적인 네트워크로 드러난다. 도시의 건축이라는 주제는 앞서 언급한 군집과 이동성이 표방하는 혼합적 프로그램과 네트워크가 기존의 도시 맥락과 연관성을 가져야하며, 나아가 도시를 구성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주제	군집	이동성	도시의 건축
개념	프로그램의 혼합과 개인과 도시를 매개하는 중간영역	경험의 장으로서의 가로	군집과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장을 통한 도시의 구축
건축과의 연관성	구성요소	네트워크	건축-도시의 맥락

표 3 매트빌딩 개념의 건축적 연관성

2.3. 매트빌딩에서 나타나는 팀텐 이념의 건축적 특징

위에서 분석한 팀텐의 언술과 이념은 인간을 쾌적한 환경과 적절한 기능이 제공되기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기능적인 시각이 전제되어있는 근대건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사람은 도시에 살아가기 위해서 기능적 요소로 한정되는 요소만을 갖출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도시적 경험을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한 팀텐은, 매트빌딩이라는 일련의 건축양식을 형성하며 이러한 환경을 구축하는 실험을 했다. 즉, 매트빌딩은 완성된 이념의 건축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도이자 이념을 구성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들이 시도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건축적 장치들은 동시대, 혹은 그 이후 출현한 다른 실험적 건축그룹보다 보편적이고 무난한 경향이 있다. 아키그램Archigram이나 요나 프리드먼Yona Friedman; GEAM, 메타볼리즘Metabolism 등에서 보이는 건축적 장치들은 기술의 발달이 가져오는 편의성이나 가능성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고, 이러한 기술적 성장이 빠르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가정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양상을 보여줄 수 있었다. 반면 팀텐의 건축 장치들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이었으며, 과거나 당대에 이미 존재하던 여러 요소들을 재해석하고 조합하여 이용하는 경향을 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건축적 특징들을 봄에 있어서 건축적 장치보다는 공간구성수법과 이에 내재되어 있는 관계를 파악하는 시각들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자 한다. 이들은 관계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수반하는 다양한 개인, 혹은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이 거주하고 만나는 방식이 공간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팀텐의 이념의 건축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매트빌딩에서 군집과 다양한 동선을 통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각각 나타나는 건축적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매트빌딩의 이념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3.1. 매트빌딩의 구성요소에서 나타나는 특징

2.3.1.1. 매스의 분절과 프로그램의 혼합

거대한 단일 매스를 차치하고 주변의 맥락과 내부적 구성전략에 맞춰 단위 구성요소를 재조합하는 것은 매트빌딩을 형성하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사람들은 기능에 따라 구분된 공간에서 목적한 프로그램만을 수행하는 점적인 공간이용방식에서 벗어나 산재된 여러 프로그램을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접근하면서 자신의 생활의 영역을 형성하는 면적인 공간이용방식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기능별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경우에 따라 다양한 이용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 즉, 사용자가 이용하는 공간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며, 이러한 특징은 이후 언급할 커뮤니티와 경험의 폭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1) Aldo van Eyck, Amsterdam Orphanage

매트빌딩의 선도적 사례로 등장하는 알도 반 아이크의 암스테르담 고아원은 단위 모듈의 설정과 확장의 개념을 충실히 설명하고 있다. 중의적 개념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 계획안은 아이들의 연령대에 따라 단위 모듈을 두 형태로 구분했으며, 이 모듈은 직교 그리드 안에서 배치되지만 공간이 연결되는 방식은 대각선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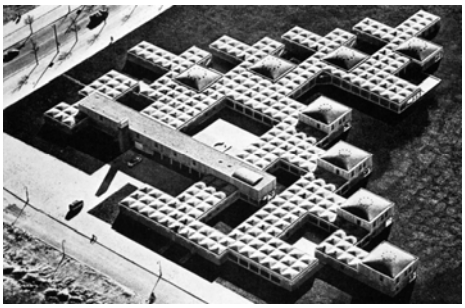


그림 8 암스테르담 고아원 전경

이러한 대각선 배열을 통해 단위공간의 접합점에서 생기는 유휴공간은 내밀한 중정과 같은 외부공간을 형성하거나 공적으로 기능하는 실내 공공 공간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내밀한 외부공간이나 공적인 내부공간은 특정한 공간규칙에 따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산재하여 탈(脫)중심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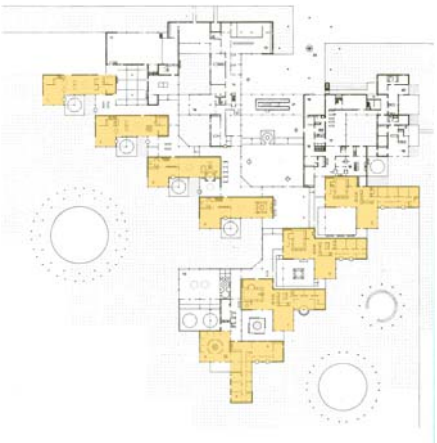


그림 9 단위 모듈의 대각선 연결

이러한 공간구성을 통해 고아원에서는

놀이, 교육, 휴식, 수면, 식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단일화된 공간에서 일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반복되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공간을 이용하는 아이들 무리의 성격과 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발생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분화하며, 이를 통해 각각의 공간에 차별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된다.

(2) Candilis-Josic-Woods, Berlin Free University, Frankfurt Rőmerberg

프랑크푸르트의 도심을 재개발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칸딜리스와 조식, 우즈는 기존의 도시조직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매스를 이용하여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것 대신에 매트빌딩을 제안한다. 이들은 전체 공간을 아우르는 격자 체계의 동선을 기반으로 주거와 상업시설, 극장, 휴식공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트 전체에 흩뿌려 놓았으며,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동선과 수많은 중정을 통해 층간의 단절을 막고 공간 전체에 걸쳐 같은 공간에 있다는 통일감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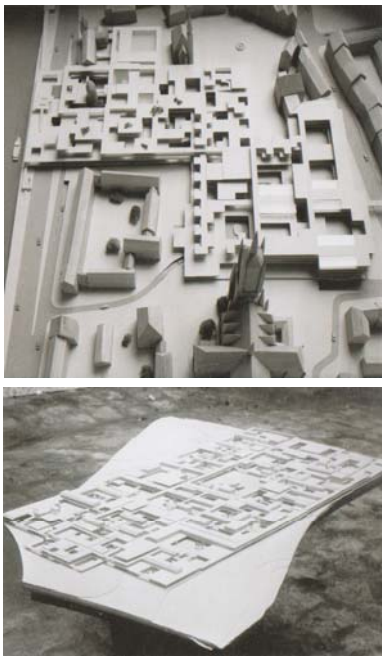


그림 10 프랑크푸르트 도심 계획안(상)과 베를린 자유대학(하)

암스테르담 고아원과는 달리 반복되지 않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건물 내외부에 요철을 형성하며 흩어져 있다. 이는 중정이나 내부뿐만 아니라 매트 밖에도 형태적 다양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 건물이 다양한 경험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은 베를린 자유대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에서 필요한 소형 및 대형 강의실, 세미나실, 연구실 등이 격자 형태의 동선 안에 흩어져 있으며, 이러한 구성은 서로 다른 학생과 프로그램 사이에 간섭을 유발한다.

2.3.1.2. 보이드와 중간영역

확정된 매스 사이로 등장하는 공간은 접하고 있는 단위 매스들을 아우르는 작은 규모의 커뮤니티를 중재하는 공공영역으로 작용한다. 중간영역의 특징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속성 모두를 담지하며 사람들에게 커뮤니티에 속한다는 소속감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간영역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물리적 연결이 나타나는 형태 이외에도 물리적 연결 없이 같은 공간에 속한다는 인식을 줌으로서 공간감을 형성한다. 매트빌딩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공간적 장치로서 보이드, 이동 공간과 더불어 별도의 중간영역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 이를 실험하고자 했다.

(1) Aldo van Eyck, Amsterdam Orphanage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건물은 실내공간과 대비되는 속성으로의 외부공간인 중정이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반복적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그 형성방식이 단위 개체의 반복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내와 외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외부 공간을 둘러서 위요감을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반복적 공간으로 형성되게끔 단위개체를 조정했다. 이를 위해 단위개체는 L자형과 T자형의 독특한 평면을 지니게 된다.

그림 11 중정에 위요감을 형성하는 L자형과 T자형의 단위모듈

또한 이 건물에서는 실내공간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인 실외로 나가는 관계가 자못 흥미롭다. 유리로 구획된 다른 곳의 경계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동선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는 중간영역의 특성을 지니는 예비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복도에서는 단이 있는 외부공간과 반복적인 기둥을 이용한 레이어를 형성[28]하여 시각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예비공간으로서의 공간감을 형성하려고 하였고, 유아실에서 중정으로 나가는 곳 또한 단을 배치하고 원형의 상징물을 배치

28) 오광석 외, 알도 반 아이크 건축에서 “사이영역” 개념에 관한 연구 - 1945년부터 1959년 사이의 전후 CIAM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7권 1호, 2008

함으로써 직접적인 공간연결 대신에 이들의 영역성을 중화할 수 있는 공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하여 아이들은 실내에서 외부로 나간다는 영역성을 느끼게 되어 복도를 걸으며 중정을 보거나 실제로 중정으로 나가는 일련의 행동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공간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반면 단위 개체가 형성하고 있는 위요감이나 실내에서 실외를 경계 짓는 투명한 유리는 중정이 내부공간의 연속이라는 동일한 공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따라서 암스테르담 고아원에 산재되어있는 중정은 그 자체로 일종의 중복된 공간감이 교차하는 중간영역으로써 기능하게 된다. 한편 이렇게 형성된 중간영역으로서의 중정은 직접적인 물리적 연결이나 시각적 연결요소를 배제한 채 각각 따로 존재하고 있다.

그림 12 내부-캐노피-중정으로 이어지는 전이공간

(그림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내부적 외부공간을 통해 아이들은 내부동선에서 내부-외부-내부 순서의 중층적인 시각적 공간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내부 가로를 거니는 동안 중첩된 공간이 전이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중정의 일부가 내부동선에 관입됨으로써 증폭된다. 즉, 그리드에 맞춰 진행되는 기둥과 실제 내외부의 경계를 나누는 창이 이원화되어 추가적인 레이어를 형성하는데, 이는 공간의 중첩을 통해 느껴지는 전이적 경험의 깊이를 더함과 동시에, 중정보다 더 내밀한 반 외부공간을 형성함으로서 내부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공간에 위계를 두어 전이적 성격을 더욱 세밀하게 구현하고 있다.

한편, 반사적(半私的) 공간, 혹은 반공적(半公的) 공간으로의 중간영역은 각각이 분리되어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모여 일정한 집합을 이루려는 성격을 보이는 프로젝트가 적지 않다. 이러한 공간은 독립된 중간영역보다

공공적 성격이 더 강하게 드러나며, 따라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거나 커뮤니티에 접근하는데 더 개방적인 성격을 보인다. 독립적 중간영역보다 더 연속적인 공간의 성격을 지니는 연계된 중간영역은 그 속성에 힘입어 이동공간으로 전이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2) Giancarlo de Carlo, Collegio Colle Student Accomo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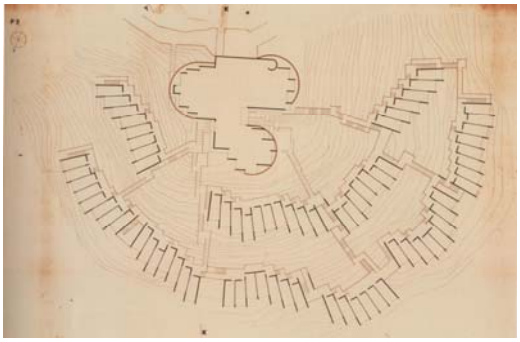


그림 13 꼴레대학 기숙사 평면도

그림 14 꼴레대학 기숙사 전경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진행한 기안카를로 데 카를로의 꼴레 대학 학생 기숙사는 중세 도시조직의 잔재가 남아있는 우르비노Urbino에 설계된 프로젝트이다. 이 기숙사 프로젝트에서 카를로는 선존하는 도시조직과 대지의 유기적 지형에 맞추어 긴 장방형 형태의 기숙사 유닛이 부채꼴 모양으로 퍼지는 형태의 기숙사를 계획했다.[29] 단위 유닛은 상하, 좌우로 요철을 형성하며 붙으며, 북쪽으로 존재하는 전체 기숙사를 연결하는 복도 또한 단위 유닛에 맞춰서 고저와 요철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복도의 높이와 폭이 변하며 복도는 획일화된 선형의 복도가 아닌 고유의 장소성을 갖는 외부공간의 연속으로 읽힌다.

한편 요철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서 복도는 조형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단위 실의 확장으로 읽히며 분절된 공간감을 야기한다. 요철이 형성하는 천장의 높이와 단위 실의 벽을 연장하여 형성되는 복도의 측벽은 이러한 관점의 물리적 기준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특성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극대화된다. 각각

29) Risselada, Max. Heuvel, Dirk van den, Team 10 : 1953-81, in search of a utopia of the present, Rotterdam, 2005

의 요철이 개인의 테라스를 표현하는 듯한 분절된 매스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열린 창과 같은 띠가 동시에 건물 전체의 모습을 점유하며 공간의 분절과 연속이라는 개념의 충돌로 인한 긴장을 전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도는 선형 공공공간임과 동시에 각 개실이 확장되며 형성하는 분절된 사적인 영역성을 동시에 담고 있는 중간영역의 연속으로 읽을 수도 있다. 이는 통합된 공간으로 읽히는 영역까지는 공공영역으로서의 영역성을 획득하지만, 창너머로 보이는 복도는 단위 공간의 확장으로서의 테라스로 인식되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는 공간적 장치로서 작용한다.

그림 15 공동성과 개별성이 동시에 드러나는 복도

이러한 중간영역의 특징은 전이적인 공간 속성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암스테르담 고아원의 중정이나 꼴레 대학 기숙사의 복도가 그러하듯이,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에서 중간영역은 상황과 사건에 맞추어 둘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공간적 성격도 유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Aldo van Eyck, Pastoor van Ars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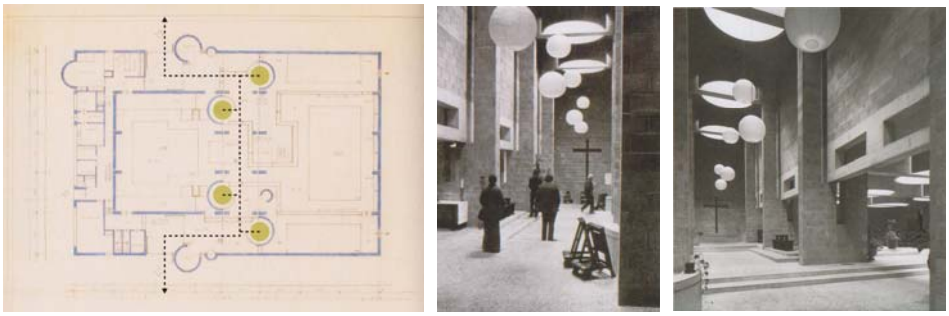


그림 16 동선의 일부에 일시적 커뮤니티가 생성되는 공간(좌)와 중앙동선 전경(중,우)

이러한 공간의 변화하는 성격의 또 다른 예로, 알도 반 아이크의 Pastoor van Ars 교회를 들 수 있다. 건축가는 일부 건축 프로젝트에서 군집에서 벗어나서 벽 자체를 이용하여 모호한 공간을 형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는 Pastoor van Ars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 동선은 이 건물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며 교회의 공간을 양분하는데, 이 중심 공간에 원 형태의 공간이 딸려있어 중심 공간에서 파생되는 일시적 사건을 수용하게 된다. 이 공간은 한쪽으로만 막혀있는 반원 형태의 벽이 휘돌고 있어서 예배당으로는 닫힌 공간성을 갖고 있지만, 동선에는 열려있어 지나치게 오픈된 주동선과는 달리 일시적으로 사적 영역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개인의 이용에 있어서는 기도를 하거나 글을 읽는 공간으로 작용하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면 소규모의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이는 항상 유지되는 공간적 특성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와 같은 사적화(私的化)이다. 이러한 사적화는 복도 바닥에 이용된 단이나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빛, 그리고 원형 벽을 따라 앞쪽으로 형성되는 낮은 담 등을 통하여 유도되고 강화된다. 이러한 소규모 중간영역의 배치는 성스러운 공간으로서의 교회에서 형성되기 쉽지 않은 커뮤니티의 형성을 촉진하는 공간적 매체로 이용된다.

2.3.1.3. 변화가능성

팀텐이 언급하는 변화가능성은 여타 다른 20세기 중반의 아방가르드 그룹과는 달리 기계적인 변화 수단을 차치하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관점으로서, 이들의 변화가능성은 인프라스트럭처와 단위모듈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써 변하지 않는 부분인 인프라스트럭처와 변화 가능한 부분인 단위모듈로 이분화된 구성으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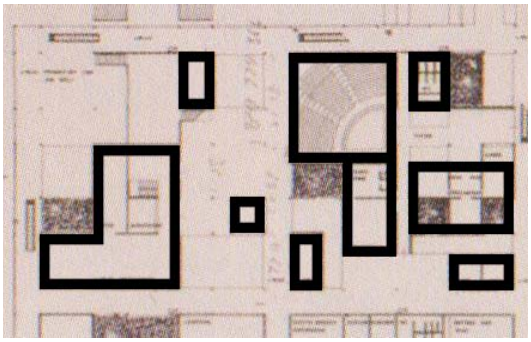


그림 17 프랑크푸르트 계획안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에 따른 모듈의 변화

고정된 인프라스트럭처는 물리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동선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전체적인 매트를 형성하는 프레임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매트와 도시를 연결해주는 도시

성과 확장의 프레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의 대척점으로서, 모듈이나 매스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위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고정된 형태를 가지기보다 유동적으로 설계되며, 이러한 변화하는 성격이 건물 외적으로 표현되는 성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매트빌딩은 완결된 형태를 보인다기보다는 미완결된 형상과 외관을 보여주며,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나타나는 시스템이 확장되는 것에 맞추어 같은 방식으로 추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분화 이외에도, 단위주거나 공간의 다양한 변용을 통해 합리적인 공간의 축소 혹은 확장을 이루어내었다. 이는 이용자로 하여금 공간의 이용에 있어서 모두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생활의 차이와 공간 활용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존재론적 의미에서의 거주를 실현하는 바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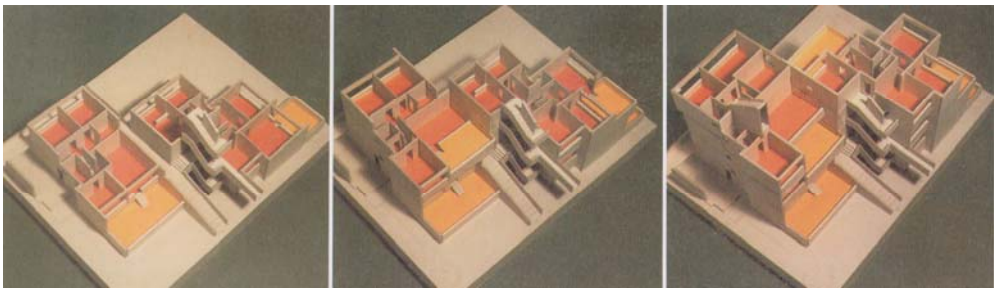


그림 18 마테오티 하우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단위주거의 변화

정리하자면, 군집형태가 보여주는 변화가능성이란 프로그램에 따라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는 계획성의 문제이자 다양한 생활 경험과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모듈의 변화 가능성을 나타낸다.

2.3.2. 매트빌딩의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특징

2.3.2.1. 다양한 동선의 형성과 시각적 표현

커뮤니티의 형성을 새로운 도시거주공간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생각한 팀텐은 기존의 도시와 건축에서 나타나는 동선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가로를 통해서 타 집단과 상호연계성을 형성함을 통해 비독립 집단을 위한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위요성enclosure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 팀텐은, 위요성의 건축적 표현으로서 도시와 연결되는 인프라스트럭처와 더불어서 순환동선 개념을 매트빌딩에 도입하였다.

(1) Candilis-Josic-Woods, Berlin Free University, Frankfurt Rőmer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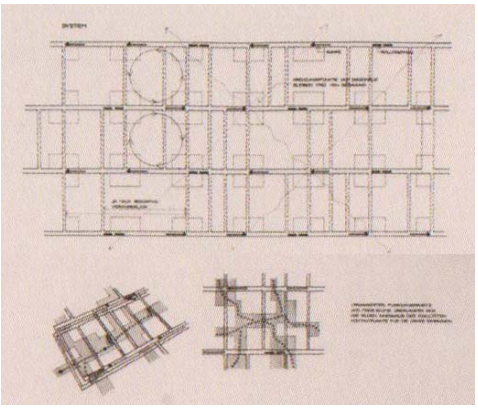


그림 19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표현된 순환동선과 관통동선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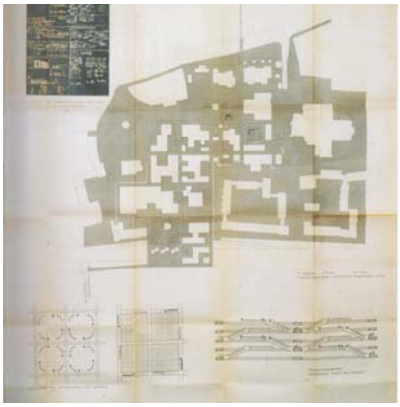


그림 20 프랑크푸르트 도심 계획안에서 표현된 순환동선과 수직동선 다이어그램

이러한 순환개념이 잘 표현된 매트빌딩 중 하나로 앞서 살펴본 베를린 자유대학과 프랑크푸르트 도심개발계획이 있다. 칸달리스와 조식, 우즈의 위 작품들은 인프라스트럭처로의 수평 그리드와 중세 도시를 연상시키는 연계된 중정으로 이루어진 동선이 겹쳐지며 다양한 동선을 표현하고 있다.

각 학과별로 거시적인 구분은 있으되, 이를 통일된 건물로 표현하지 않고 기능

을 해체하여 흩어두고 인프라스트럭처로 엮은 전형적인 매트빌딩의 형태를 보여주는 이 두 가지 계획에서 이들은 중정을 중심으로 학과별 커뮤니티의 형성이 가능한 소규모의 순환동선을 계획하고, 더불어 인프라스트럭처의 부분적인 이용을 통해 이러한 계획을 보조하고 있다(그림 19). 반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캠퍼스 전체를 엮는 동선으로서는 대지를 격자로 가로지르는 주된 동선과 더불어 중정의 연계를 통해 비정형적으로 흩어지는 동선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중정 연계를 통한 동선은 격자형 주 동선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방사형 이동을 지원한다.

베를린 자유대학에 비해 수직적으로 더 높은 프랑크푸르트 계획안의 경우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볼 수 있었던 수평적 순환동선이나 격자형 동선과는 별도로 수직적 이동에 대한 고민을 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연속적인 경험의 형성과 더불어 수직적인 단절을 최소화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건축적 장치로, 에스컬레이터를 연계함에 있어서 판을 거니는 동선을 삽입함으로서 공간의 경험이 매트의 일부분에서 국소적으로 한정되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

(2) Giancarlo de Carlo, Villaggio matteotti housing estate

기안카를로 데 카를로의 마테오티 저층 집합주거는 칸달리스-조식-우즈의 개념과는 또 다른 맥락으로서의 동선의 연결과 교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단지를 크게 구획하는 선형 동선을 중심으로 늘어서 있는 집합주거는 가로간의 연결을 위해서 작은 골목을 형성하며, 이러한 골목은 건물이 형성하는 요철에 의해 각기 다른 공간감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단지와 단지를 있는 공중가로는 이러한 가로간의 연결에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공중가로는 기존의 육교와 같은 교통으로서의 가로가 아니라, 생활과 생활을 직접 연결하고 간섭을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티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크기와 각도, 요철로 인한 생김새의 변화 등을 통해서 공중가로 자신과 지상 위의 가로에 새로운 경험과 교차의 가능성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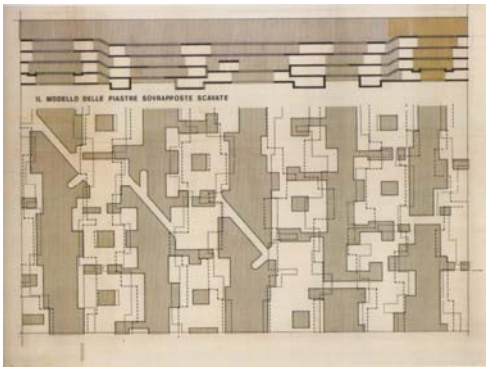


그림 21 매스가 만들어내는 요철

2.3.2.2. 동선과 영역의 교차와 연결

(1) Giancarlo de Carlo, Villaggio matteotti housing estate

카를로의 이 저층 집합주거의 또 다른 특징은 일차원적인 선형 공공공간인 가로에 다양한 형태와 요철을 지닌 테라스와 공중가로가 간섭하여 뜻밖의 만남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사적 영역의 확장으로서의 테라스는 공공영역인 가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며 일시적인 사건의 형성을 일으키게 하는 장치로서 활용되지만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으며, 물리적 연결을 전제로 하는 공중가로 또한 공공영역에서 진입하는 입구가 시각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개체의 순간적인 만남을 통한 기대치 않은 커뮤니티의 형성이라는 개념을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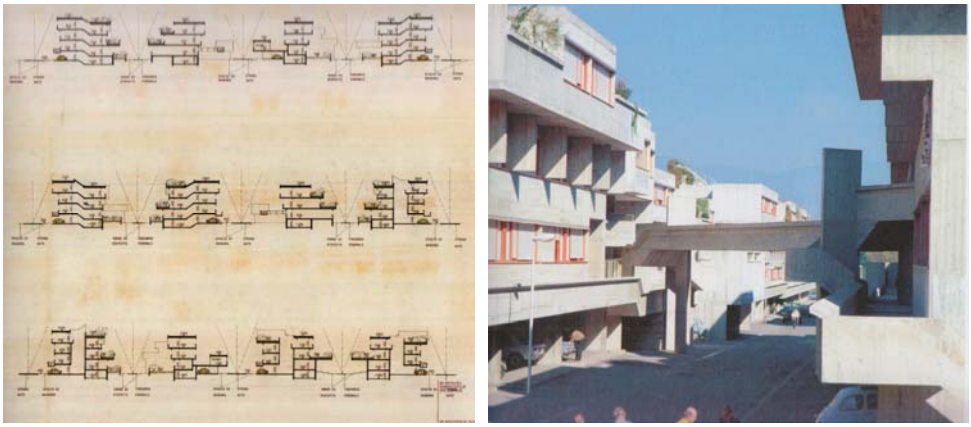


그림 22 가로에서의 다양한 관계가 표현되는 단면도(좌)와 풍경(우)

반면 중층적으로 쌓여있는 테라스는 크기와 방향성에서 차이를 보이며 계단형식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사적 중간영역이라 할 수 있는 테라스를 통해 기존에 존재하는 건물 중심의 커뮤니티와는 별도로 가로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며, 이는 가로에서 발생하는 커뮤니티의 일시성과는 달리 고정된 성격을 띠고 있다. 가로중심의 고정된 커뮤니티로의 가능성은 물리적인 연결성을 만드는 공중가로에 의해 촉진된다.

한편, 단위매스의 요철은 층고마다 다르게 형성되며 독특한 하부공간을 형성한다. 이 공간은 매 장소마다 공간의 높이와 너비라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통해 공간감의 변화를 주고 있으며, 이는 선형 동선을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면서 공공공간의 좌우로 일시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잠재적 중간영역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2) Candilis-Josic-Woods, Berlin Free University, Frankfurt Rőmerberg

베를린 자유대학과 프랑크푸르트 도심계획안에서 수평적 동선에 접합하여 형성된 비정형적인 프로그램 매스는 각 층에서 다른 형태와 크기를 지니게 되므로 동선이 구획하는 단위 공간 안에서 비정형적인 오프닝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오프닝 안에서 다양한 레벨에 걸쳐 복잡한 동선의 교차와 외부공간의 중첩이 일어나게 된다.

경쟁설계로 진행된 두 프로젝트의 패널에는 각각의 오프닝의 연계를 통한 이동과 수직으로 구획된 동선이 교차를 이루며 단위 영역에서의 순환동선과 전체를 가로지르는 동선, 대각선으로 흐르는 동선들이 만나며 다양한 교차를 계획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동선의 교차를 통해 이들은 프로젝트 전체에 걸쳐서 매 오프닝마다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동선의 조합이 나타나는 구성을 시도했다. 더불어 층마다 다른 프로그램의 삽입은 매우 다양한 데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이동공간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일시적 사건을 수용하는 사이영역으로서의 기능 또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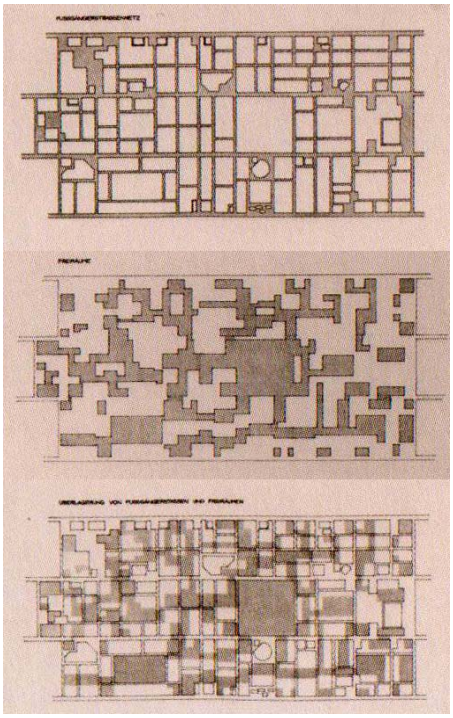


그림 23 동선과 중정이 교차되며 경험을 형성되는 다이어그램

수직적으로 통합된 공간은 다양한 동선의 교차를 통해 한 장소로 모인 사람들에

게 다른 층, 다른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별도의 그룹에게 하나의 같은 공간을 영위하는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성을 유도하며, 이는 여러 층에 걸쳐 요철을 이루며 형성된 데크를 통해 다른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있는 공간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성의 증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즈는 베를린 자유대학을 설계하면서 낮은 매트 형식의 설계안을 제안하며, '대지에 깔리는 구성에는 커뮤니케이션과 변화에 더 큰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2.3.3. 매트빌딩의 확장성과 도시와의 관계

팀텐의 매트빌딩은 근본적으로 세계 2차 대전 이후 주거의 대량공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근대건축이 형성한 기능적 도시의 폐해를 짚고 나오면서 도시를 형성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즉, 프로그램의 군집과 이동성을 갖춘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한 도시의 형성을 통해 도시 전체에 걸쳐 분절되어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연결하면서 기존의 도시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따라서 팀텐의 매트빌딩은 기본적으로 도시의 맥을 잇고자 하는 연결성과 도시 전체로 군집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팀텐의 건축 중에서 도시적 스케일의 프로젝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그 유형 역시 신도시나 새로운 단지를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기존에 존재하는 도시에 겹쳐서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를 형성하는 계획안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4. 팀텐의 한계와 시사점

앞서 살펴본 팀텐의 이론을 통해 이들이 주도하였던 CIAM 10차 회의의 주제 중 건축적 양식의 기반이 되는 군집과 이동성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후위의 주제, 즉 변화와 확장, 도시의 건축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단위 프로그램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풍부한 건축-도시공간을 형성하려고 했던 팀텐은 단일화된 매스를 산개하여 군집의 형태를 구현함으로써 커뮤니티를 형성하려 하였고, 이를 네트워크화하여 경험의 생성을 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팀텐의 매트빌딩은 네트워크형 매트빌딩이다.

우선 군집의 형성에 있어서 매트빌딩은 단위공간이나 프로그램의 산개를 통한 혼합을 추구하고 있었고, 중간영역을 도입함으로써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매개했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의 요구와 변화에 유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다. 이러한 전략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도시에서 나타나는 개인과 사회의 이분법적 관계 사이에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함으로써 근대도시 형성방식이 야기한 개인의 파편화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였다. 이동성의 경우 가지형식의 막다른 길 대신 다양한 순환동선과 도시적 맥락을 연결하는 동선을 형성하여 거주자에게 이동에 있어 선택가능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선을 통해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교차시켜서 이동공간을 통한 경험의 생성을 야기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주제	군집	이동성	도시의 건축
건축과의 연관성	구성요소	네트워크	건축-도시의 맥락
매트빌딩의 건축적 특징	- 산개된 프로그램 - 보이드와 중간영역 - 변화가능성	- 시각적으로 드러난 다양한 동선 - 동선의 교차 및 연결	- 매트빌딩 내부에서 나타나는 도시적 특성 - 매트빌딩의 확장성과 도시와의 관계

표 4 팀텐의 매트빌딩의 건축적 특성

결과적으로 매트빌딩의 목적과 의미는 반복되는 군집체가 낮게 깔리는 형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형성과 이벤트의 발생 및 수용을 통해 사람들

의 실질적인 삶을 수용하고자 한 것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팀텐의 문제의식과 목적에도 불구하고 매트빌딩이라는 건축적 제안은 한계를 드러냈다. 집합 주거 양식의 매트빌딩에서는 모듈의 형성과 반복이 매우 규칙적으로 드러나며, 복합시설의 경우 약간의 변용이 가미되는 양식을 보이나 그 정도와 종류가 다소 한정적이다. 또한 이들의 구성에 있어서 평면적 배치 구성은 복잡해지며 기존 CIAM에서 제시했던 단위 건물 중심의 계획안보다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암시하지만, 단위 모듈이나 동의 구성은 일정부분 모더니즘 건축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집합주거의 단위주거나 단위모듈은 기존의 건축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집합주거나 병원과 같은 반복되는 실을 갖는 건물의 경우 실의 배치가 기존의 방식과 동일한 반복적 적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일정한 크기를 기준으로 하나의 단위건물 혹은 건물의 군집을 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공공성을 갖는 프로그램의 경우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집합주거보다 비교적 다양한 크기의 단위모듈이 나타나지만, 이 다양성은 한정된 규칙과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근대건축에서 볼 수 있는 건축양식과 다소 비슷하게 보일 가능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문제는 CIAM 회의 내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 일례로, 1959년 단게 겐조(丹下健三)는 바케마와 반 덴 브룩의 Kennemerland 계획안에 대해서 르꼬르뷔제의 마르세유 아파트와 비단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30] 이에 대해 바케마는 르꼬르뷔제의 방법론을 이용했음을 시인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참가하여 조화롭고 능동적인 삶을 창조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추상적인 답변을 하는 것에 그쳤다.[31]

팀텐에 의한 근대건축운동의 종결은 수많은 건축적 실험들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내었다. 이들의 실험은 기존 근대건축이 가져왔던 폐해들, 즉 단조롭고, 획일적이며, 건축가의 강령에 따른 기계적이고 딱딱한 건축들이 만들어냈던 사회적 관계들의 상실을 회복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더불어 나날이 발달하는 현대기술을 건축에 적용함으로서 더 다양하고 개인적이

30) Oscar Newman, New Frontier in Architecture, p147 재인용
31) 이희봉, Team 10의 CIAM 탈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 건축역사연구 16호, 1998

며, 그래서 보편적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실험적으로 제시하였다.

현대 건축의 탈 CIAM적인 경향을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특성은 고도화한 기술 문명이 만들어 놓은 막대한 건설 수요와 조직적 생산 기술의 구사를 통해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규모와 복합성에서 생기는 새로운 건축 기능과 도시 기능을 현실화하려는 입장이다. 둘째는 기술 문명의 진행을 부정하려는 입장에 서 있으며, 현대 기술 문명에서 소외된 인간성을 도시 생활과 건축의 새로운 접근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이다.[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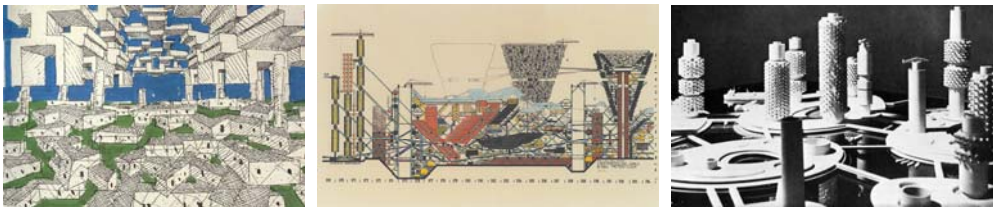


그림 24 CIAM 이후 실험적 건축 그룹(GEAM, Archigram, Metabolism)

CIAM의 해체 원인이라 할 수 있는 팀텐의 등장 이후로 요나 프리드만Yona Friedman; GEAM, 아키그램Archigram, 메타볼리즘Metabolism, 슈퍼스튜디오Super Studio, 어반 디자인 그룹Urban Design Group 등의 실험적 건축 그룹이 나타났다. 이들은 건축과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심리적 요구를 해결할 질적 성장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을 통한 예술과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인간적인 교류와 사회적 친밀감이라는 새로운 환경요소를 건축 및 도시이론에 도입함으로써 자율성과 가변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도시를 엮어나가는 새로운 성장의 개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당시의 도시 건축 프로젝트들은 매트-빌딩의 개념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당시의 건축가들이 인구의 갑작스러운 증가와 도시의 확장, 그리고 그에 대한 건축과 도시의 대응이라는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아테네 헌장으로 대표되는 CIAM의 근대적 도시론에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도시와

32) 남지현, CIAM 이후 아방가르드 도시주거이론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를 통한 성장개념' -Team X, GEAM, Archigram의 '자율성'과 '가변성'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론, 2004

건축이 밀접하게 연관되는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33] 하지만 이런 운동 또한 거대구조를 기반으로 한 형식화된 방식으로 관계성이나 일시적 사건을 수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33) 장용순, OMA, MVRDV, SANAA에 나타난 매트-빌딩의 영향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문집 270호, 2011

제 3장 현대 매트빌딩 분석

3.1. 단위공간의 구성방식 분석
3.2. 보이드와 중간영역 분석
3.3. 현대 매트빌딩의 네트워크 분석
3.4. 현대 매트빌딩의 도시성 분석

분석의 방법론은 앞서 팀텐의 작업을 살펴봄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특징을 기반으로 한다. 즉, 단일 매스를 산개하여 프로그램 혹은 단위주거를 군집 형태로 묶는 구성적 측면과 이를 엮는 다양한 동선을 가시적으로 표현하여 커뮤니티와 경험을 형성하는 네트워크적 측면, 그리고 기존의 대지와 도시 등 주변 환경과의 관계성에서 사례를 분석하고, 이들 현대 매트빌딩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건축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주제	항목	팀텐의 매트빌딩의 건축적 특징	분석 요소
군집	구성요소	산개된 프로그램	단위공간의 구성방식 보이드와 중간영역
		변화가능성	
		보이드와 중간영역	
이동성	네트워크	시각적으로 드러난 동선	네트워크
		동선의 교차 및 연결	
도시의 건축	건축-도시 관계	확장성과 도시와의 관계	도시성

표 5 분석틀 설정

3.1. 단위공간의 구성방식 분석

단위공간이 개별성을 가지면서 재구성되어 낮은 형태의 군집을 이루는 것은 매트 빌딩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이는 수많은 현대 건축물 중 매트빌딩을 구분하는 척도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대 매트빌딩에서 단위공간이 형성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이는 프로그램별로 분리되기도 하고, 단위 주거로 구성되기도 하며, 일련의 프로그램들이 모여 하나의 단위 매스를 형성하여 독립성을 갖추며 매트빌딩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통성과 더불어 현대 매트빌딩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구성방식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서 단위 실을 매트에 산개시키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전체 매스 내에서 단위공간을 조합함으로써 완결성을 갖는 밀도 있는 평면을 구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단위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하나의 거대한 판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이 판 위에서 프로그램은 일정한 영역을 가지며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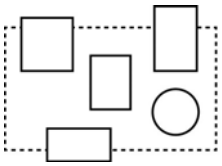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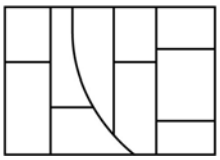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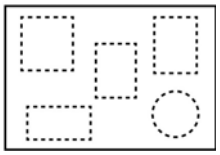
단위공간의 독립적 구성	매스의 분절	단위공간의 약화
		

표 6 단위공간의 구성방식

3.1.1. 단위공간의 독립적 구성

첫 번째 유형에서 나타나는 매트 내부의 구성방식은 매트 내부에서 프로그램 간에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스는 자신 고유의 프로그램을 소유함과 동시에 공공적 역할을 하는 선형 네트워크나 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이러한 연결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건축가의 의도로서 직접적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치방식에서 나타나는 단위공간은 프로그램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단위공간의 크기, 모양, 높이, 개방성에 차이를 나타내며, 하나의 매트 위에서 이들은 사이공간에 다양성을 만들어내며 기존의 건물들이 보여주는 단조로운 공간의 형성을 탈피한다. 이 구성을 통하여 프로그램은 그 주변을 영위하는 동선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따라서 상호간의 소통과 간섭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

단위공간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은 팀텐의 방법론을 답습하고, 일부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매트빌딩은 매스의 반복적인 조합으로 구성되며, 이들을 연결하는 가시적인 네트워크를 드러내는 특징을 보인다. 즉, 매트빌딩을 구성하는 전제로서 독립적 단위공간의 모임이 필수적이며, 이것이 곧 팀텐이 언급하는 군집이다.

현대건축의 사례 중에서 이러한 구성을 선보이는 매트빌딩은 크로아티아 병원계획, 카나자와 미술관, 크로아티아 현대미술관, 넥서스 월드 집합주거, VPRO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이 유형을 대표하면서도 각각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을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크로아티아 지중해 병원계획

크로아티아에 Njiric+Njiric이 설계한 이 병원 계획안은 중정과 단위 병실이 같은 규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규격화된 그리드를 기준으로 번갈아가며 위치하며 매트를 형성하고 있다. 이 건물은 매트를 형성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엄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지만, 그것과 대비적으로 건물 전체의 형태는 대지가 형성하는 선을 그대로 차용하여 규칙이 만들어내는 엄정함에 대한 파격을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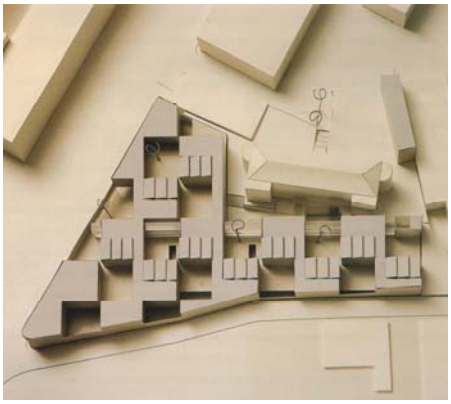


그림 25 크로아티아 지중해 병원계획에서 나타나는 규칙적인 단위공간의 반복

이 병원 계획안에서 볼 수 있는 규칙적인 매스와 중정의 배열은 병실이라는 반복적인 프로그램을 해석하면서 나타난 방법론으로 보인다. 반면, 자칫 이러한 규칙과

반복이 가져올 수 있는 단조로움과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매스 상층부의 천창을 통한 빛의 이용, 공간 높이의 다양화 등 건축적 방법을 동원하였으며, 대지와 그리드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비정형적 공간을 만들어내어 다양한 공간을 형성하였다.

(2) 카나자와 미술관

SANAA가 설계한 이 미술관은 단일의 원형 매스 안에서 사각형과 원형 등의 기하학적 모양을 갖는 중정과 전시공간들이 조합되어 수평적인 매트 형태를 만들고 있다. 이 건물에서 보이는 매스 배치의 특징은, 특정한 위계나 원칙을 두지 않고 매트 안에 매스를 군집시켜 놓은 것이다. 다만 그리드를 이용하여 모듈러를 설정한 것이 이 건물의 유일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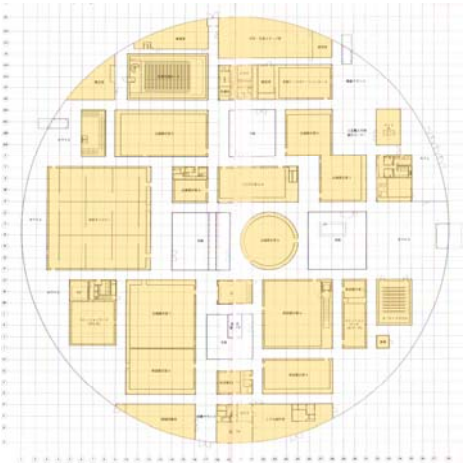


그림 26 카나자와 미술관에서 나타나는 단위 공간의 독립적 구성

이 건물의 단위공간은 각 공간 내에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면적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다. 사전 설정된 그리드를 준수하여 사각형의 구성을 이용하는 듯하지만, 각각의 사각형이 규격화되어있지 않고, 중간에 존재하는 원형의 프로그램 매스를 통하여 이러한 그리드 일색의 건물구성에 새로운 분위기를 구현한다.

프로그램은 건물의 중심부에는 미술 전시관을 배치하였고, 외곽에는 집회실, 사무실, 기념품가게, 오디토리엄, 카페 등이 위치하며, 원형과 그리드가 만나는 비정형적 공간은 포이어 공간으로 남겨두었다. 즉, 공간과 매스의 배치에 기능적 레이어가 위치하여 전시를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을 다양한 층위를 경험하게 된다.

(3) 크로아티아 현대미술관

Njiric+Njiric이 계획한 크로아티아 도심에 건설될 이 건물은 도시의 연장으로 인식한 건축가의 생각을 반영하여, 도시가 상부로 연장되는 듯한 판의 움직임을 통하여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지상층부터 상층부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이에 보이드와 매스가 판을 관통하여 형성되며, 그 배치에 있어서 그리드를 포함한 어떠한 규칙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불규칙적 배치는 매트 안에 삽입된 보이드의 너비가 변화하는 형태로 형성되면서 혼잡한 평면의 면모를 더욱 강화한다. 이 건물이 여러 매트빌딩 가운데서도 특징적인 것은, 이렇듯 프로그램을 담는 매트의 군집으로서의 매트빌딩이 아니라 연속된 판을 관통하는 보이드가 군집을 이루며 매트빌딩과 같은 면모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반면 연속된 판은 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건축적 장치로서, 보이드가 형성하는 최소한의 단절과 결합하여 통합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물은 보이드에 형성되는 프로그램의 독립적 구성과 매트에 형성되는 프로그램의 통합된 구성이 혼재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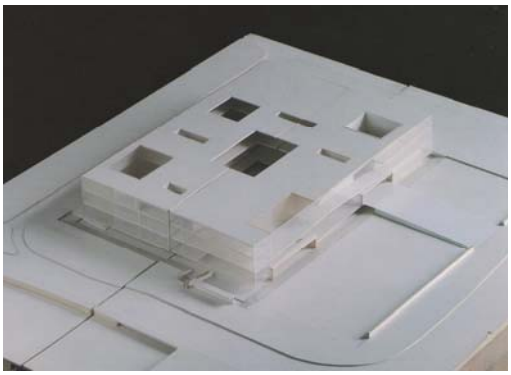


그림 27 크로아티아 현대미술관에서 나타나는 보이드의 독립적 구성

(4) 넥서스 월드 집합주거

12채가 하나의 동을 구성하고 있는 이 건물은 두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동에서 주거 매스는 2층에 걸쳐 배치되어 있는데, 2층에서 보여주는 매스는 앞서 보았던 산개된 매스의 방식을 따라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이 공간적으로 연결된 3층의 주거는 한 방향으로 연속되어 선형 매스를 이루고 있으며, 각 선형 매스 사이에는 동선과 보이드가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세 개의 선형 단위매스는 벽이 연장된 듯 보이는 지붕을 통해 여러 효과를 얻는다. 첫째는 일본의 자연이라 할 수 있는 겹치는 둔덕을 표현함으로써 인공적인 방법을 통해 자연적 요소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둘째는

각 단위매스 사이에 시선을 공유함으로써 생기는 프라이버시의 간섭을 막고, 하늘을 향하는 풍경을 제공한 것이다.

(5) Villa VPRO

Villa VPRO에서는 시설이 위치하는 매스와 보이드가 느슨한 그리드를 따라 전체 매스 안에 산개되어 있으며, 이들이 형성하는 벽을 통해 완전히 구분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위요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 건물은 공간 구성상 독립적인 단위공간을 구성하는 유형에 속하긴 하지만, 군집을 이루는 매스 내외부로 모두 프로그램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이 유형의 다른 건물들과는 차이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연속성의 인식은 투명한 벽과 개폐가 조절된 공간구성을 통해 강조되고 있으며, 또한 수직적 보이드와 휘어지고 연속되는 판의 기능을 통해 수직적으로 통합되는 면모를 보인다. 즉, 이 건물은 단위공간이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을 한 축으로 하되, 통합된 공간의 구현을 또 다른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따라서 첫 번째 방식과 세 번째 방식의 중간에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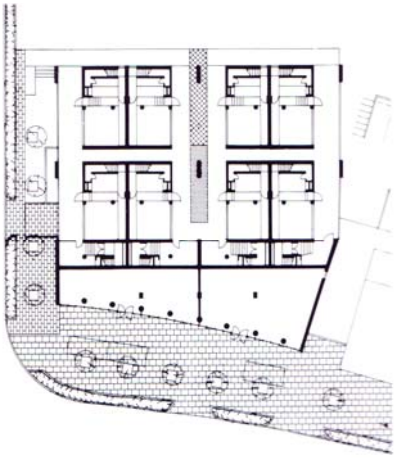


그림 28 넥서스 월드 집합주거 단위주거의 독립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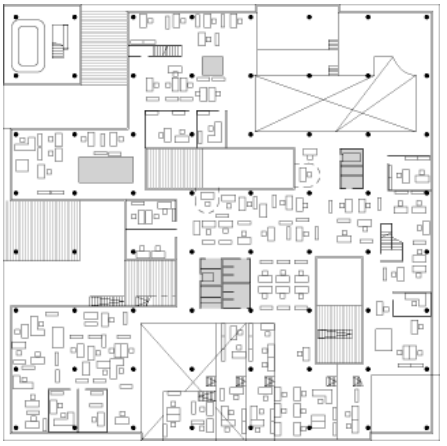


그림 29 Villa VPRO의 매트 내외부에서 형성되는 프로그램

3.1.2. 단일 매트의 분절을 통한 단위공간의 구성

첫 번째 유형과는 달리 두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은 과거의 매트빌딩의 구성방식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방식을 이용한 매트의 구성을 보여준다. 이 중 두 번째 유형에서 나타나는 매트 내부의 구성방식은 단위평면이 밀도 있게 결합하

여 하나의 커다란 매스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단위 요소가 유연하게 변하며 결합하여 내부적 측면에서 변화의 가능성과 차별화를 형성한다.

이러한 매트의 단위 공간적 특성은 각 유닛에서의 프라이버시가 매우 중요하게 간주된다는 역설을 담보하고 있다. 즉, 이 유형은 매트빌딩 중에서 가장 밀도 있게 구축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반면 개개의 공간은 매우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 매트는 공공성과 커뮤니티의 형성 및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이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구축방식으로의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보이드의 경우 또한 적극적인 중간영역으로서의 보이드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공간으로서의 프라이버시를 더욱 중시하는 보이드를 형성하게 된다.

(1) EDA 집합주거

대지의 형태를 그대로 건물의 형태로 이용하여 전체 매트의 형태를 형성한 이 집합주거는 반복되는 단위주거의 집합이라는 정형화된 방법 대신에 철도와 대지선 등 다양한 기준선들의 조합을 통하여 매트 내부를 구획하는 방식으로 단위주거의 집합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형성된 각각의 단위주거는 모두 다른 모양과 평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단위주거 이외에 빈 부분이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보이드 또한 모두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보이드는 집합주거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상호간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이드의 형태와 방향, 벽을 통하여 조정되었다.

그림 30 매트를 분할하는 EDA 집합주거의 단위공간 구성

다양한 그리드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니시자와는 곡선을 이용한 연속적인 벽체를 이용했다. 그리드가 충돌하는 부분은 부드러운 곡선을 통해 연결되며, 이것은 다른 집합주택과는 다른 이 주택만의 특징적인 평면을 형성하는 주된 요소로서 작용한다.

(2) Patio House

네덜란드 이펜부르그의 이 주택은 한 블록을 모두 4.5m 높이의 매트로 만든 후 그 내부를 그리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만든 집합주거계획이다. 각각의 단위 실들은 형태와 면적, 평면의 구성 등이 모두 다르며, 각 주택의 마당은 집의 상층부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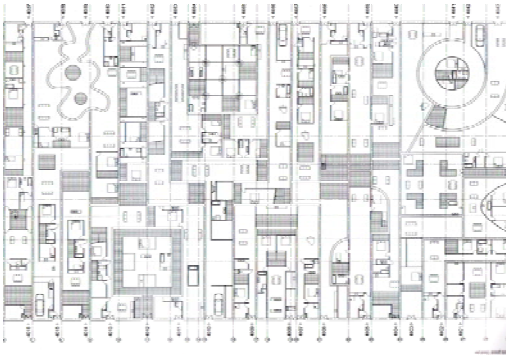


그림 31 매트를 분할하는 Patio house의 단위공간 구성

블록과 같은 이 집합주거의 입구는 모두 도로로 직접 연결되어 도로와 매트와의 중간영역을 전혀 형성하고 있지 않다. 이는 건축가의 설계의도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건축가는 이 건물을 통해 삶의 밀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주거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1층 일부의 테라스와 옥상 데크는 거주자만을 위한 개인적 외부공간으로, 높은 벽을 통해서 다른 집과 상호 간섭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즉, 밀도 있게 조합된 단위 주거의 물리적 근접성과는 상반되는 독립적 성향을 각 단위주거가 띄게 됨으로써 밀로와 프라이버시라는 상반된 현상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3) 아가디르 콤플렉스

아가디르 호텔은 지형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 하층부의 컨벤션 시설 위로 호텔을 수용하는 매스를 형성하였다. 이 호텔은 단층의 매트 안에 객실과 테라스를 포함한 호텔의 단위공간이 엄정한 그리드를 따라 위치하고 있다.

객실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된다. 단위 객실의 반을 테라스로 형성하는 타입과 테라스가 객실의 일부를 내부 점유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단위 객실은 방향을 바꾸어 수평적으로 조합되어, 일률적인 단위공간의 조합으로 읽힐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춘다.

거대한 매트의 내부에 관입되어 있는 컨벤션 홀의 상부와 보이드를 제외하고는 내부에서 외기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은 각 객실에 부가되어있는 테라스밖에 없다. 이 테라스를 통해 숙박객은 빛과 공기, 그리고 하늘을 향한 공간을 얻는다. 건축가는 이에 대해 "거주자에게 개인이 영위하는 고유한 풍경을 제공한다[34]"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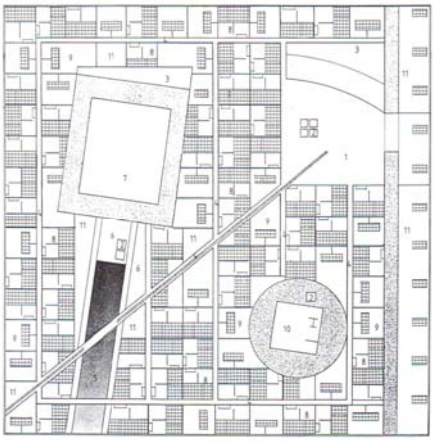


그림 32 아가디르 콤플렉스의 호텔부에서 나타나는 밀집된 객실이 형성하는 매트

3.1.3. 단위공간의 약화를 통한 매트의 형성

현대 매트빌딩의 세 번째 구성방식으로써 단위공간의 특성이 약화되고 하나의 단일화된 매트를 형성하는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매트는 상호간의 간섭을 앞선 두 방식보다 높이고 그로 인한 사건과 경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즉, 단위요소를 형성하고, 군집을 이루는 것이 매트를 형성하는 것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트를 형성하는 것이 구성에 있어서 우선되고, 그 안에서 단위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그 방식에 있어서는 앞선 방법처럼 역설적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소통과 간섭을 우선하고 있다.

이들은 공간 상호간에 시각적, 혹은 물리적 연결성을 가지며, 사람들은 자유롭게 형성된 판 위를 이동하며 자신의 활동과 관계, 위치를 스스로 형성한다. 이는 기존의 네트워크 특성을 가지는 매트빌딩이나 단위공간이 밀집된 매트빌딩과는 차별화된 통합형 매트빌딩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1) EPFL 러닝센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용해야 하는 건축가는 커다란 단층의 매트를 이용하여

34) El Croquis: Rem Koolhaas/O.M.A. 1987/1992, El Croquis, Madrid, 1994

이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다. 굴곡진 매트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경계 없이, 혹은 단이나 투명한 유리를 이용한 약화된 경계를 이루며 배치되어 매트 내부의 공간이 하나로 인식되도록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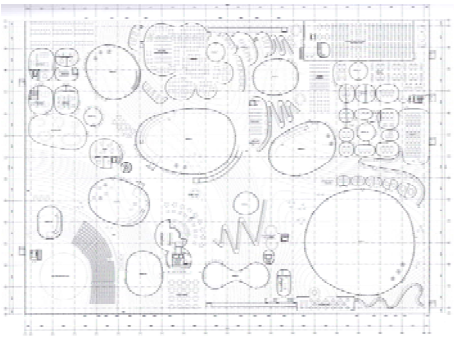


그림 33 EPFL 러닝센터 평면

그림 34 통합적으로 인식되는 내부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가지며 산개되었으며, 특정한 규칙 없이 동일한 위계를 가지고 있다. 매트를 관통하는 보이드 또한 이러한 배치의 일부로서 평면상에 위치하고 있어 독립적인 단위공간이라는 구성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리드를 차치하고 전적으로 곡선으로 일관하는 내부공간 프로그램 공간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현대 매트빌딩 계획안과 차별을 이룬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단위로 매스를 분할하고 다시 군집을 이룬다는 매트빌딩의 특성을 가장 원론적이고 직설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2) 아가디르 콤플렉스

이 호텔의 하층부는 모로코의 지형과 공간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대지의 미를 구현했다고 평가받는다. 굴곡진 판 상하에 오디토리엄, 컨벤션 홀 등 이 건물의 주요 프로그램이 위치하며, 공간의 구분과 차단이 최소화되어 통합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인공적인 대지를 직접적으로 인식하며 은유화된 모로코의 자연을 인식한다. 이러한 경험과 공간감의 창출은 대지의 움직임에 맞춘 천장의 변화를 통해서 가중된다. 천장 또한 하부 프로그램과 공간감에 맞추어 굴곡을 형성하여 공간감의 연속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건축가의 의도는 자유로운 동선과 맞물려 경험의 창출이라는 궁극적 목적으로 수렴하

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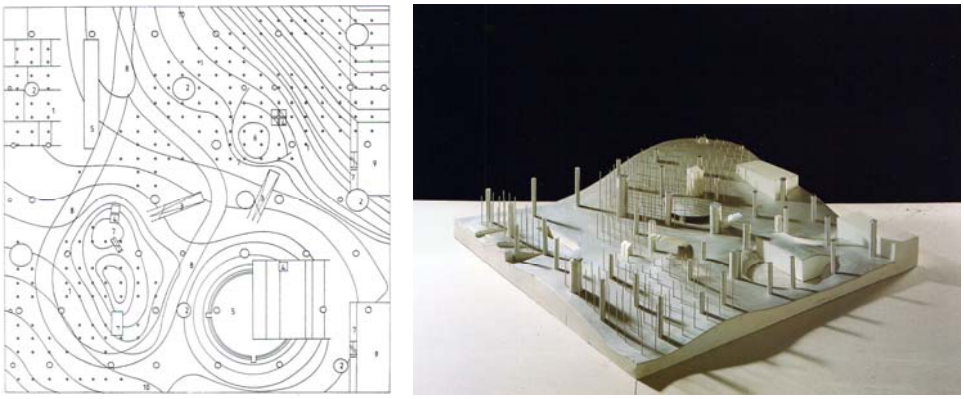


그림 35 아가디르 콤플렉스 하부 매트의 도면(좌)와 모형(우)

3.2. 보이드와 중간영역 분석

단위공간이 해체되고, 이들이 재차 군집을 이루면서 형성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이드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주된 장이 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띄고 있으며, 매트빌딩에서 단위공간에서 제시되는 규정된 프로그램 이외에 필요한 모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폭넓게 수용할 뿐만 아니라 이용의 양상과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유동적인 수용성을 갖는다. 또한 시대의 변화 따른 공간의 활용양상이 달라지면서 요구되는 시대적 유동성 또한 중간영역과 보이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매트빌딩의 보이드와 중간영역은 프로그램의 성격이 그 곳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사건에 따라 공공에서 개인으로, 혹은 그 역으로 전이되는 특성을 2장에서 앞서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중간영역은 다른 단위공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공공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며, 이러한 공간을 통해 여타 다른 건축양식과는 달리 지역성과 거주성을 기반으로 하는 일상적이고 친밀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중간영역과 보이드가 형성하는 매트빌딩의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특징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하나의 건축에 혼재되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잘 반영한 건축양상으로써, 시대를 뛰어넘어 현재에 매트빌딩이라는 건축유형을 재등장시킨 원동력이자 앞으로도 매트빌딩이 유형적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3.2.1. 독립적 공간으로서의 커뮤니티 공간

보이드는 그 구성방식에 따라 구분해볼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 유형은 단위공간과 같은 위계를 가지는 공간요소로서의 보이드, 혹은 중간영역이다. 즉, 이러한 공간이 수용하는 커뮤니티적 특성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고, 이를 구성함에 있어서 단위공간과 같은 위계로 간주하거나, 혹은 더욱 중요한 요소로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러한 중간영역에 대해 형태적으로 주시할 부분은, 완결성이 강한 기하학적 공간을 형성하며, 주로 보이드의 형태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동선과 결합함으로서 이동성이라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나, 이들이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이 공간으로 확장되거나 심지어 개별적인 프

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생성하고 수용함으로써 전이적이고 유동적인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크로아티아 지중해 병원 계획

단위 매스는 세 개의 긴 직사각형의 병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두 개 이상의 중정과 만나고 있다.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병실에 열려있는 중정을 영위함으로서 이 건물에 접근도와 활용도가 높은 중정을 갖게 되며, 다른 매스에의 사람들과 함께 중정을 공유함으로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된다. 무의미하게 넓은 녹지공간이 아니라 비록 작더라도 각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매트빌딩의 이념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중정은 대각선으로 다른 중정과 연결되어 있어 공간 본연의 위요감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연결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36 크로아티아 지중해 병원계획에서 나타나는 독립적 커뮤니티 공간(회색)

그림 37 커뮤니티 공간 투시도

(2) 카나자와 미술관

카나자와 미술관은 두 가지의 커뮤니티 공간 형성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중정을 통한 독립적 커뮤니티 공간이고, 둘째는 군집과 외벽의 경계를 통해 형성되는 포이어 공간이다.

세지마의 보이드의 경우, 중정이 다른 프로그램 매스와 동일한 위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점이다. 중정이 매트를 수직적으로 관통하면서 보이드를 이

루는 방식은 칸딜리스, 조식, 우즈의 베를린 자유대학이나 프랑크푸르트 계획안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그 형성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Team10의 방식은 인프라스트럭처, 즉 동선이 형성되면서 대지에 그리드 형태의 빈 공간을 만든다. 그 빈 공간 이 곧 보이드가 되는 것으로서, 비정형적 공간이 형성되고, 이러한 공간은 매스의 형태에 따라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반면 세지마의 중정은 다른 프로그램과 차이가 거의 없다. 이 미술관은 그 크기와 너비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스를 중심에 군집시키는 방법을 택했으므로, 매트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공간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에 세지마는 빛과 공기가 매트 중심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중정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중정은 다른 프로그램과 같은 형태와 위계를 가지고 있고, 배치도 하나의 매스로서 동일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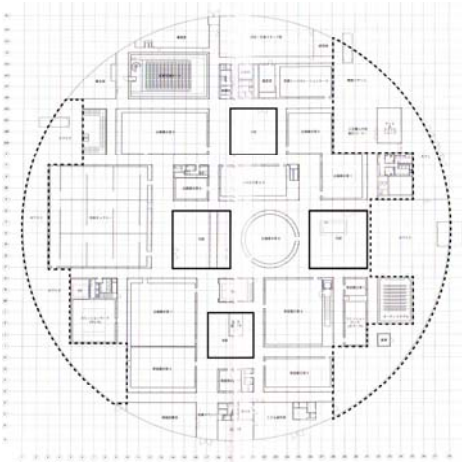


그림 38 카나자와 미술관에 나타나는 중정(실선)과 포이어(점선)

이러한 중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부 매스를 지나다니면서도 실내 깊숙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미로와 같은 공간의 전이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미로를 헤매며 겪을 수 있는 공간의 변화는 중정을 통해 더욱 극대화된다.

3.2.2. 단위공간의 조합 사이로 형성되는 커뮤니티 공간

단위공간이 형성하는 사이공간은 팀텐의 매트빌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형적인 커뮤니티 공간의 형성방식으로써, 베를린 자유대학이나 프랑크푸르트 도심계획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와 단위매스가 형성하는 여분의 공간을 커뮤니티를 주 목적으로 하는 외부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식은 현대 매트빌딩에도 일부 계승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 매트빌딩에서 나타나는 사이공간은 더 다채롭고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일괄적인 외부공간으로의 조성 대신에 내부공간, 반 외부공간을 형성하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환경의 조성에 신경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간의 반복적 구성을 넘어서서 수직적 보이드나 공간감의 변화를 고려한 건축적 표상을 통한 커뮤니티 공간의 목적성을 표현하는 것에 더욱 적극적이다.

이러한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로서 카나자와 미술관의 포이어공간, 넥서스 월드 집합주거, Villa VPRO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카나자와 미술관

카나자와 미술관이 보여주는 커뮤니티 공간은 군집의 내부와 외부에서 다른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군집의 외부는 전체적인 건물의 외형을 결정하는 원형의 경계와 프로그램 매스 사이의 비정형적 공간을 일컫는다. 방향성 없이 군집을 두르고 있는 이 포이어 공간은 얇고 투명한 유리막으로 외부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 외부 공간의 연장으로 읽히는 반면, 미술공간의 연장으로서 일련의 기획전시 등이 형성기도 하는 등 유동적인 프로그램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림 39 외부공간의 연속이자 내부공간으로 인식되는 전이적 특성의 포이어

이러한 공간은 매트빌딩에서 나타나는 전이적 공간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외부공간의 내부적 연장으로서의 성격과 내부 군집의 외부적 확장으로서의 성격이 포이어 공간에 동시에 드러나며, 이러한 성격의 충돌이 예상하지 못한 커뮤니티의 형성에 일조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군집 내부에서는 각 전시장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미묘하게 달라지며 동선에 위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동선의 길이와 폭의 차별화를 통해 그리드에서 미묘하게 벗어난 여분의 공간을 형성하면서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등 순간적인 점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

(2) 넥서스 월드 집합주거

3층에 걸친 넥서스 월드 집합주거는 각 층마다 표방하고 있는 공간의 성격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상층은 도로에 접해있는 부분을 대지의 경계를 이용하여 들어 올림으로써 보차를 분리하고 사람들을 건물 안으로 자연스럽게 유입하는 효과를 만들며, 모든 층중에서 가장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면 3층은 선형 배치를 통한 긴 형태의 매스가 면을 형성하며 배치되는 독립적이고 사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2층에서 보여주는 평면은 군집 사이로 형성되는 공간에서 커뮤니티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으며, 또한 전면에 존재하는 1층과 2층을 엮는 보이드나 매트 중간을 가로지르는 수직적 보이드를 통해 커뮤니티의 가능성과 공간감이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전면으로 향하는 개방성과 층을 가로지르는 보이드를 통해 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층을 분리하여 이 공간에 접근하기까지 추가적인 동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과 전면에서의 공간의 분리가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 거주자 중심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중의적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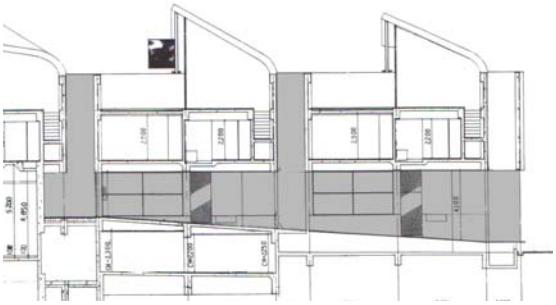


그림 40 넥서스 집합주거에서 나타나는 1층의 공유공간(좌)과 수직적 보이드(우)

(3) Villa VPRO

Villa VPRO에서는 단위 매스 사이로 적당한 규모의 빈 판을 남겨둠으로써 확고하게 규정된 프로그램 이외의 유동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공간적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공간이 또 다른 프로그램을 형성하며 이용되는 경우를 앞에

서 살펴봤다면, 이 공간이 수직적 보이드와 넓은 계단,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판 등과 결합하여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하는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일견 이러한 공간이 건축주의 요구와 일치하는 면모를 보인다. 방송국 사무실인 이 건물의 초기 요구조건은 '상호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질 것'이었고, 커뮤니티 공간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연결은 상징성을 갖춘 수직적 요소를 통해 층을 넘나드는 연계성을 확보한다.

3.2.3. 통합된 커뮤니티 공간

마지막 유형은 단위공간이 형성하는 매트 내에서 단위공간이 위치하지 않고 그 이외의 공간에서 통합적으로 중간영역이 형성되는 공간을 일컫는다. 이러한 중간영역은 기하학적이거나 완결성을 가지지 않고, 같은 형태를 만들거나 반복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1) EPFL 러닝센터

이 건물의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하는 것에 내부와 외부의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유동적인 판이라는 하나의 건축적 방법을 이용하여 동시에 구현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투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고정된 시설들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연속된 판 위에서 통합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간은 자연적으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간주된다. 이 판 위에서 학생들은 국지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이러한 커뮤니티는 상호간섭에 적극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매트 위에 놓인 여러 가지 시설들, 즉 램프, 계단, 조형성을 가지고 있는 낮은 의자나 벤치 등은 이러한

그림 41 통합된 내부공간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커뮤니티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의 핵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외부에서는 부분적으로 들어 올린 매트를 통해 하부의 공간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매트 중간 중간에 형성된 보이드가 대지에 형성하는 비정형의 그림자와 보이드를 둘러싸고 있는 낮은 높이의 매트 단면과 유리창을 통하여 느슨한 위요감이 형성되고, 이는 커뮤니티를 촉발하는 반건축적 장치가 된다.

그림 42 매트 하부를 통해 통합되는 EPFL의 외부공간

(2) EDA 집합주거, 넥서스 월드 집합주거

EDA 집합주거가 위치하는 사이트는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지고 있다. 니시자와 류에는 매트빌딩을 도입하고 비정형적인 보이드를 매트 내부에 낸 것도 기찻길에서 발원하는 소음을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으며, 또한 대지의 경사를 극복함과 동시에 철도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막기 위해 필로티를 이용하여 매트 전체를 띄우는 계획안을 세웠다.

이 집합주거의 공동공간은 이러한 이유로 형성된 매트 아래의 공간에 형성된다. 모든 주거는 이 공간에서 각각 독립적인 계단을 통하여 진입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건물의 로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공동공간은 상부의 매트에 형성되어있는 보이드가 만드는 비정형적인 그림자와 다양한 방향으로 형성된 계단이 교차되는 풍경을 통하여 다이나믹한 공동공간을 형성하며, 이러한 효과를 통하여 인접한 다른 도시공간과의 차별성을 확보한다.

그림 43 EDA 집합주거 하부에 형성되는 외부공간

EDA 집합주거에서 볼 수 있는 보이드를 통한 공공공간의 활성화 전략은 넥서스 월드 집합주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건물의 커뮤니티공간이 이루는 공간 중 1층에 위치한 데크는 다른 공간과 비교하여 가장 공공적이고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1층의 공공공간 또한 앞서 언급한 수직적 보이드를 통한 공간의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며, 따라서 도시공간의 연속으로서 볼 수 있음과 동시에 보이드가 만들어내는 외부와의 차별적인 공간감의 형성을 통한 영역성이 동시에 드러나는 중간영역이 형성된다.

3.3. 현대 매트빌딩의 네트워크 분석

3.3.1. 다양한 동선의 형성

가지형태의 일원화된 동선을 비판하고 다양한 위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 가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매트빌딩의 주요 전략 중 하나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의 목적은 이동공간에 대한 역할의 재고가 이루어지면서 이 공간은 실질적으로 상호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로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현대 매트빌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동선들은 이러한 특징을 계승하여 수직적, 수평적으로 연계되며 폭넓은 이동가능성을 형성함과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용양태와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접근성을 제시한다. 사용자의 폭넓은 선택가능성을 제공함과 더불어 마치 미로와 같은 공간을 통해 공간 경험이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체험을 통해 구성되는 것을 의도한다.

(1) EPFL 러닝 센터, 아가디르 콤플렉스

다양한 동선의 형성은 판의 형성을 통해 극적으로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매스가 얹히는 유동적인 판은 정해진 선형 이동 동선에서 구현하고자 한 자유로운 이동과 그를 통한 자유로운 커뮤니티의 구현에 있어서 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판 위에서 사람들은 정해진 동선이 아니라 자신의 활동에 따라 동선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개개인이 형성하는 무한한 동선의 장이자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4 EPFL 러닝센터에서 나타나는 동선요소

이러한 개념이 잘 드러나는 EPFL 러닝 센터는 경사가 있는 부분에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의 최소한의 장치를 해주었을 뿐, 보이드를 제외한 판 전체가 이동공간으로 이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판 위에서 사람들은 프로그램으로의 접근과 이동에 있어서 수직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같은 매트 안의 공간을 다른 관점으로 관찰하게 된다.

(2) 카나자와 미술관

카나자와 미술관은 주변 지역과의 단절성을 최소화하고 이 건물이 위치한 공원의 연장으로써 이 건물을 이해했다. 따라서 세지마는 이 건물을 원형으로 설계하고 다양한 방향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에 위계를 형성하는 고정된 입구를 제거했다.

건물 내부에는 최외곽에 위치한 연속된 포이어를 통해 건물 전체를 순환하는 동선을 형성하여 매스의 군집이 이루는 면이 만드는 요철과 그리드와 원형 매스의 관계를 통해공간감의 변화를 겪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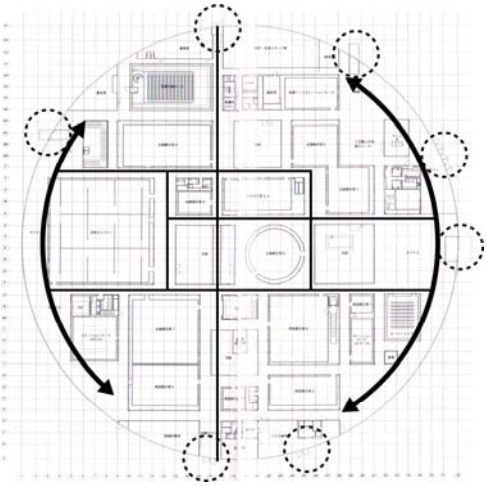


그림 45 상호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포이어를 통한 순환동선(굵은 선)과 내부동선(가는선), 그리고 입구(점선)

또한 이와 더불어 내부의 그리드를 통해 건물 내부로 진입하고 가로지르는 동선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동선으로 이용되며, 이러한 동선의 이동 와중에 보이드와 만나면서 이동중에 다양한 공간감과 풍경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동선은 그 폭과 빛이 변하며 각 동선에서 서로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직교가로는 매스 사이로 수많은 교차와 모퉁이를 만들며 미로와 같은 공간을 형성한다. 이러한 도로를 따라 움직이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다른 공간과 갑작스럽게 조우하게 되어 경험을 촉발한다.

3.3.2. 동선과 영역의 교차와 연결

동선의 수직적 교차는 칸딜리스, 조식, 우즈에 의한 여러 매트빌딩 계획안에서 이미 나타난 바 있다. 그리드를 기반으로 형성된 동선들은 공중에서 수직적인 교차를 이루며 상호간에 시각적인 상호간섭을 이루어내고, 이러한 간섭은 그리드형 동선과 매스가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외부공간에서 통합된다. 이러한 외부공간은 다시 지상층에서 연결되며 건축적 공중가로가 제공하지 못하는 자유로운 이동과 수직적 공간경험을 창출한다.

이렇듯 가로가 교차하며 물리적으로 연결되거나 비물리적인 연관성을 형성하고, 이것이 수직적 보이드에서 통합되는 방식은 현대 매트빌딩에서도 빈번히 이용되는 공간형성방식이다.

(1) Valencia 대학강의동

발렌시아 대학강의동은 크게 단위 교실이 반복되어 배치되는 부분과 이를 감싸는 커다란 비정형의 매스가 있는 부분으로 나뉜다. 모랄레스는 대학에서 일어나는 수업과 커뮤니티를 포함한 활동에서 특정한 위계나 순서가 없고 동시다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나며 이에 따라 면의 이용형태와 밀도가 바뀐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균일한 빛과 밀도를 가진 공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이러한 그의 생각은 여러 층에 걸친 교실의 산적을 통한 현대적 매트빌딩으로 표현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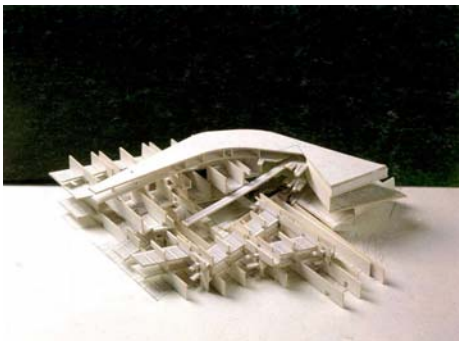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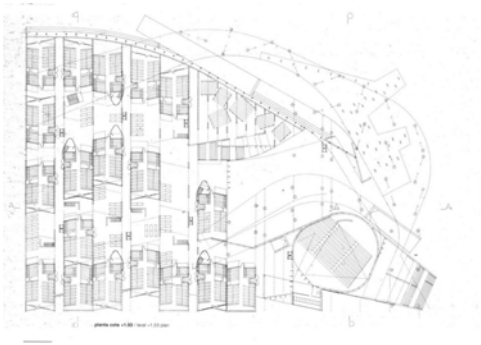



그림 46 Valencia 대학강의동의 모형(좌)와 동선체계(우)

다른 현대적 매트빌딩과 이 건물이 결정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이 건물은 매트빌딩이면서도 상정하는 판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과거의 칸딜리스, 조식, 우즈가 보여주는 초기의 매트빌딩에 시스템적으로는 더욱 가까워보인다.

그리드를 차치하고 다양한 방향의 사선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를 만든 이 강의동은 지상층에서 움직이는 수평방향의 이동과, 전체 강의실과 대지를 감싸는 매스를 연결하는 한 방향으로의 수직 동선으로 구성되었으며, 큰 매스를 통한 이동 동선이 최상층에 위치하게 되어 이동에 있어 수직적으로 다양한 레이어를 형성한다.

(2) 크로아티아 현대미술관

이 미술관에서 동선과 영역의 교차는 보이드를 통해 일어난다. 프로그램을 담는 1층의 영역은 수직으로 건물을 관통하며 다른 층에서는 보이드로 기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이드를 중심으로 각 평면에 프로그램이 위치하는 영역이 바뀌면서 보이드의 경계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적 측면에서의 내외부가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는 연속되어 있는 판을 따라 이동하며 보이드 공간을 다시 접할 때 인식하게 되어 공간의 전이적인 특징에 대한 사용자의 경험을 촉발하게 된다. 즉, 이를 통해 사용자는 하나의 공간을 여러 방식과 시점으로 인식하게 되어 보이드에 대한 총체적인 감각을 형성한다.

(3) Villa VPRO

중층적인 판은 크로아티아 현대미술관과 같이 경사로와 넓은 계단을 통하여 여러 층에 걸쳐 연속적인 공간의 흐름을 만든다. 이에 더해서 판이 접히고 휘어지며 다른 현대 매트빌딩보다 다이나믹한 보이드를 형성하는데 일조한다. 이러한 공간에 상징적인 계단과 같은 동선이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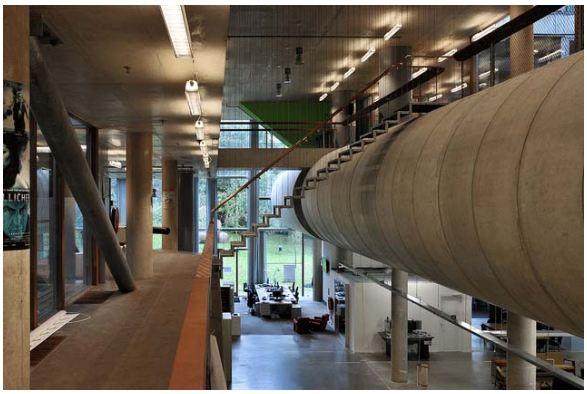


그림 47 Villa VPRO의 커뮤니티 공간

가됨으로써 다양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보이드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는 요소로 이용된다.

사진에서 보이는 공간은 이 건물에서 가장 입체적 공간감이 높은 부분으로, 접히는 판의 형태와 돌출되는 매스, 수직적인 보이드, 공간을 가로지르는 계단, 적층된 판 등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노출된다. 이러한 건축적 표현은 이 공간을 향한 다양한 접근과 간섭이 가능하며, 시설의 다른 부분과는 달리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3.4. 현대 매트빌딩의 도시성 분석

3.4.1. 주변 환경과의 연계

(1) EPFL 러닝 센터

EPFL 러닝센터는 매트의 구성에 있어서 두 가지가 주안점을 가지고 주변 캠퍼스와 관계를 마련하려 했다. 첫 번째는 사이트를 가로지르는 기존의 동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도시적 맥락을 유지하는 것, 그리도 두 번째는 대지가 자연스럽게 연장된 측면에서의 건물이 형성되어 건물과 대지의 연속성을 잃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높낮이에 변화를 가지는 매트를 도입했다. 들어 올린 매트의 하부를 통해서 학생들은 이 매트를 가로지르거나 건물의 주 출입구가 있는 중심의 중정으로 접근할 수 있다. 반면 대지에 접촉한 부분은 건물 내부로 접근할 수 있는 입구가 형성되는 곳으로, 매트 내부의 활동이 캠퍼스로 확장되기도 하고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활동이 매트와 관계를 맺기도 한다.

높낮이의 변화를 통해 조용함과 활기참, 경치와 접근성 등의 가치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이 건물은 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배치하면서 주변 캠퍼스 환경과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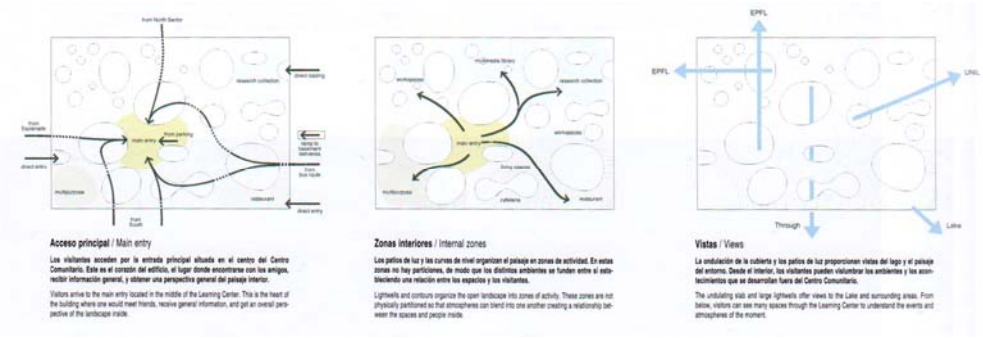


그림 48 EPFL 러닝센터의 연계를 설명하는 컨셉 다이어그램

(2) 아가디르 콤플렉스

이 건물이 주변 환경과 맺는 일차적인 관계는 주변 지형의 시각적인 모방이다. 하부 매트가 형성하는 완만한 굴곡을 통해서 모로코의 해안가에 나타나는 완만한 지형을 건축적으로 표현했으며, 이러한 경사가 정사각형으로 잘려진 단면에서 그대로 나타나며 외부에서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 하부에 배치된 컨퍼런스를 위한 각종 대형 시설들 위로 형성된 랜드스케이프에는 경사를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비정형의 동선이 있으며, 이는 이 경사진 판이 낮은 언덕으로 이루어진 해안가라는 주변의 환경을 건축 안에 도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9 주변 지형과의 연속성이 표현된 컨셉 다이어그램

입면에서 표현되는 이러한 특성과 동시에 건물 안에서 사람들은 창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릉 형태의 인공적 랜드스케이프 너머의 해변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모로코의 환경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 경험적 측면에서의 환경의 연계를 보여주고 있다.

3.4.2. 도시공간으로의 확장

(1) Valencia 대학강의동

매트빌딩의 이념은 도시 규모의 인프라스트럭처의 형성과 이를 통한 단위 프로그램의 군집과 조합으로 도시공간을 구상하는 방법론으로서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매트빌딩의 도시화라는 측면에서 당대의 도시계획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며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러한 관점은 모랄레스의 대학강의동에서도 드러난다.

모랄레스는 대학강의동의 강의실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현대 매트빌딩과는 달리 강의실 전체를 아우르는 경계를 없애고 반복되는 패턴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강의동의 확장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강의실의 배치와, 이에 수직하는 램프와 동선들의 반복을 통해서 강의동을 형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명확하게 구현된 한계나 범위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

(2) 크로아티아 지중해 병원계획

건축가는 이 건물을 설계하면서 건물 내부에 형성되는 커뮤니티 이외에도 이 건물이 가지는 도시적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말한다. 건물의 형태에 있어서 주변 캠퍼스의 도시적 맥락이 주어진 사이트로 확장되었음을 파악하고, 이러한 맥락을 도입하여 연속적인 캠퍼스의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한다.

팀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Njiric은 유전과 변형이라는 팀텐의 개념을 차용하여 구조적 미완결성을 추구했다고 말했다.[35] 즉, 그리드 형태로 만들어진 이 병원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그리드가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개념의 표현을 위해 그리드와 대지 경계가 만나는 부분에서 어떠한 조정 없이 매트가 잘린 것을 드러내고 있다.

---

35) El Croquis 114(II) Njiric + Njiric Arhitekti 1997/2003, El Croquis, Madrid, 2003

3.5. 소결

	단위공간의 구성방식			보이드와 중간영역			네트워크		도시성	
	단위공간의 독립적 구성	매트의 분절을 통한 단위공간의 구성	단위공간의 약화를 통한 매트의 형성	독립적 공간으로서의 커뮤니티 공간	단위공간의 조합 사이로 형성되는 커뮤니티 공간	통합된 커뮤니티 공간	다양한 위계의 동선의 형성	동선과 영역의 교차와 연결	도시공간과의 연계	도시공간으로의 확장
EPFL 러닝 센터			○			○	○		○	
Valencia 대학강의동	○					△	○	○		○
크로아티아 지중해 병원 계획	○			○						○
카나자와 미술관	○				○		○			
크로아티아 현대미술관	△			○				○		
EDA 집합주거		○				○		△		
Patio House		○								
넥서스 월드 집합주거	○				○	○		○		
VPRO	○				○			○		
아가디르 콤플렉스		○	○			○	○		○	

표 7 현대적 매트빌딩 분석

제 3장에서는 새롭게 나타나는 현대 매트빌딩의 종류는 항목의 조합으로 새롭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각 항목의 개별적 분석을 통해 현대 매트빌딩의 본원적 특성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현대 매트빌딩의 특성을 구성방식과 보이드, 네트워크와 도시와의 관계에 따라 각각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를 정리해보면 <표 10>과 같다.

표에서 ○로 표시한 것은 각 항목에서 명확히 특성을 드러내는 것을 나타내며, △로 표시한 것은 그 특성이 온연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다른 작품에 대한 설명을 통해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다양한 방식의 현대 매트빌딩들은 모두 고층의 근대건축의 이념을 차치하고 등장한 저층의 매트형태를 지녔으며, 각 공간과 프로그램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과

연계성을 지향하고자 하는 매트빌딩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본의를 찾을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은 단위공간, 보이드, 네트워크, 도시와의 관계가 각각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기존의 매트빌딩에서 보여주던 독립적 단위구성과 선형 네트워크의 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구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은 구성방식, 네트워크방식, 보이드의 형성방식 등 여러 항목별로 복잡한 조합을 나타내며 그 종류와 성격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같은 목적과 의미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이러한 다양성이 건축적 방법론을 통해 발현된다는 관점 하에서, 제 4장에서는 다양성과 통합성을 발현하는 현대 매트빌딩의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4장 현대 매트빌딩의 특성

4.1. 변화를 통한 새로운 공간의 구현
4.2. 관입을 통한 새로운 공간의 구현
4.3. 통합을 통한 새로운 공간의 구현
4.4. 건물 내부에서 나타나는 도시성

4.1. 변화를 통한 새로운 공간의 구현

현대 매트빌딩에서는 반복되는 모듈이라는 과거 매트빌딩의 특성에서부터 일견 자유로운 특성을 보인다. 반복되는 프로그램을 상정하는 여러 프로젝트에서도 단위공간이 자유롭게 변용되며, 이는 각 공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이용을 끌어내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결합되어있는 공공시설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주거의 경우 또한 다양한 생활유형을 수용하는 다양한 평면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거주자의 개인화라는 사회적 현상과 더불어 전통적인 가족상의 해체에 따른 다양한 가족유형의 증가와 일반화라는 추세가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단위공간의 변화는 사용자의 전환에 맞추어 주거를 점유하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패턴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의 건물에 담아야 하는 현대건축의 특성상, 각각의 이용자의 요구를 설계에 모두 반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다수의 건축가들은 매트빌딩이라는 유형을 통한 축소와 확장이 자유로운 유연한 공간을 제시한다.

4.1.1. 단위공간의 다양화

단위공간이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건물들은 프로그램의 성향을 반영하는 공간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들 건물군은 각각의 프로그램을 공간화하여 단위공간을 구성하며, 이러한 공간은 그 크기와 성격에서 차이를 보인다.

카나자와 미술관의 경우 전시실뿐만 아니라 사무실, 카페, 집회실, 기념품가게, 오디토리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시공간과 사무실 등 건물 중심부에 위치하는 공간들의 경우 각각 다른 크기의 매스로 형성되어 군집을 이루고 있고, 카페, 포이어 등 건물 외부에 위치하는 공간들의 경우 매스가 형성하는 사이공간을 이용하여 주변 매스에 의해 규정되는 공간으로 형성된다.

단위매스의 다양화는 하나의 매트를 분절하며 요소가 밀집하는 유형의 공간구성방식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MVRDV의 Patio house의 경우 직사각형의 대지에서 규정된 그리드를 기준으로 건물을 구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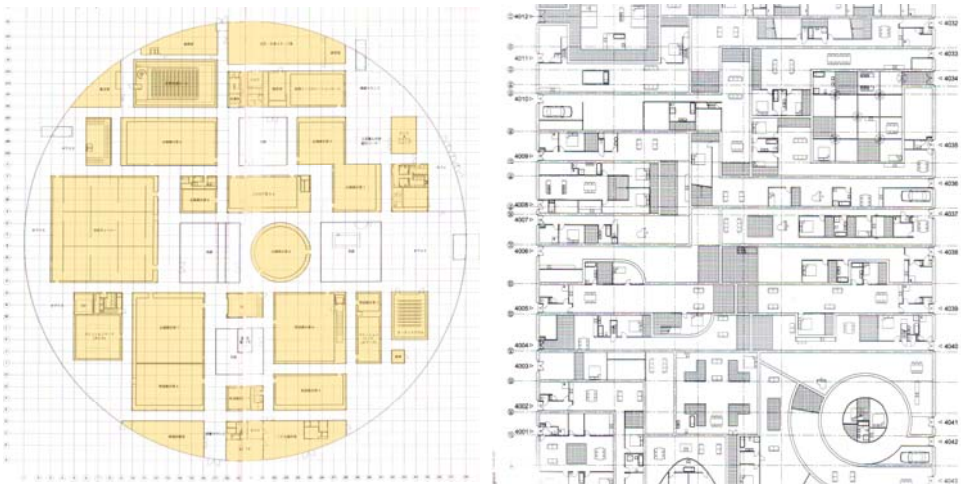


그림 50 그리드를 기준으로 다양한 단위공간을 형성하는 카나자와 미술관(좌)과 Patio house(우)

단위주택의 형태를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각 주택별로 다양한 공간의 경험을 자아내는 동시에 거주자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대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단위공간이 모듈을 형성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특성을 보이는 근대건축이나 일부 팀텐의 매트빌딩과는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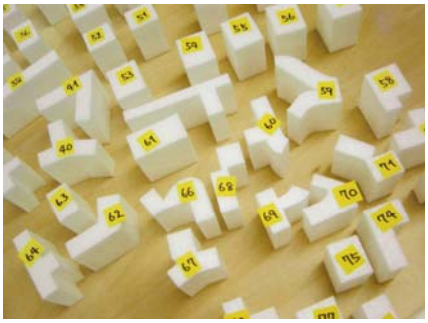


그림 51 EDA 집합주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단위주거의 형성

그림 52 대지선의 영향을 받은 EDA 집합주거 내의 벽

현대 매트빌딩에서 보이는 복잡한 평면의 구성은 일괄적으로 대지를 규정하는 규준을 차치하고 다양한 주변요소로부터 기준선을 차용함으로써 가능했다. 이러

한 전략은 획일적인 매트를 벗어나고자 하는 다양한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SANAA의 EDA 집합주거를 들 수 있다.

EDA 집합주거의 경우 또한 다양한 단위주택의 형성을 통한 공간경험이나 생활양식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Patio house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EDA 집합주거는 Patio house와는 달리 사전 규정된 그리드가 존재하지 않고 주변의 많은 요소에서 규준선을 차용함으로써 전혀 다른 단위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대지선, 기찻길, 주변 주택에서 차용한 그리드 등 수많은 요소는 이 사이트에서 복잡하게 얽히며 단위공간과 보이드를 동시에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들의 충돌은 곡선을 통하여 완화되고 연결된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단위가 없고 모든 주택의 평면과 형태가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이루고 있으며, 단위공간을 구성하면서 보이드를 동시에 고려하여 형태가 다른 보이드를 매트 내부에 산개하였다는 점이 이 건물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Valencia 대학강의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건물 또한 단일화된 규격을 차치하고 사선을 이용하여 세 개의 그리드를 한 사이트에 겹쳐놓은 채로 매트의 층위를 구성한다. 이러한 그리드는 각 층에서 다르게 드러나면서 이들이 겹치면서 생기는 비정형적인 외부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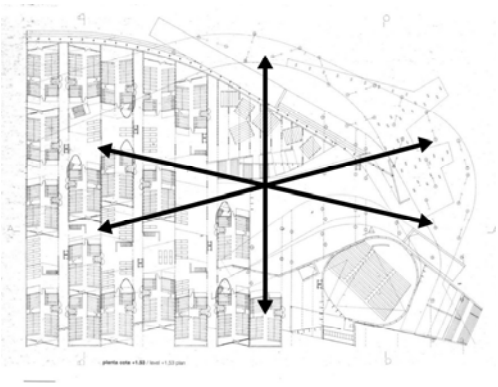


그림 53 Valencia 대학강의동의 매스의 형태와 배치를 규정하는 세 종류의 축선

4.1.2. 영역의 반전을 통한 공간의 재해석

팀텐의 매트빌딩은 매스는 프로그램을, 인프라스트럭처는 동선을, 유휴공간인 보이드와 중간영역은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명확한 공식이 있었다. 반면, 현대 매트빌딩에서는 이러한 성격별 프로그램의 구성에 반하여 평면에서 보이는 단위공간이 보이드로, 매트가 프로그램 영역으로 구획되는 영역의 반전이 나타난다.

이러한 영역의 반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크로아티아 현대미술관은 매트 중간에 박혀 있는 프로그램 매스가 보이드로 재해석되는 것을 보여준다. 1층에 구획된

도면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을 담지하는 매스는 상층부의 도면에서 보이드로 나타나며, 프로그램은 이 보이드를 경계로 나누어진 매트 위에 놓인다.

이러한 매스의 이중적 특성, 즉 보이드와 매스의 특성을 층과 이동에 따라 다르게 보여주는 공간은 동선에 따라 미술관을 관람하면서 같은 공간에 대한 다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공간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 이러한 경험의 증폭은 벽으로 구분되지 않고 열려있는 보이드와 매트 사이의 경계를 통해 비물리적인 공간의 통합을 이루어낸다.

그림 54 크로아티아 현대미술관에서 나타나는 보이드 영역의 반전. 저층에서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매스는 상층부에서 보이드로서, 다른 프로그램 이를 피해서 프로그램이 위치한다.

4.2. 관입을 통한 새로운 공간의 구현

4.2.1. 관입하는 요소에 의한 새로운 공간의 형성

전체 사이트를 규정하는 그리드에 반해서 무작위로 관입된 요소는 사전 정의된 그리드와 충돌하면서 새로운 공간의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공간은 비정형적이고 규격에서 벗어난 공간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자칫 동일요소의 반복으로 한정될 수 있는 공간구성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Patio house는 사이트 전체를 규정하는 그리드가 존재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그리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단위공간을 형성하며 거주자 개인에게 다른 공간과는 차별화되는 거주경험을 구현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직교로 한정된 사각형의 공간체험은 자칫 모든 거주민들에게 비슷한 공간경험을 선사함으로써 이 집합주거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 경험적 측면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우려를 낳는다. 따라서 건축가는 이와 동시에 직사각형의 매트 상하부에 원형의 주거와 비정형의 벽을 삽입하여 평면상에서 단순한 그리드가 형성하는 사각형의 획일적 공간감을 차치함과 동시에 다양한 요소를 만들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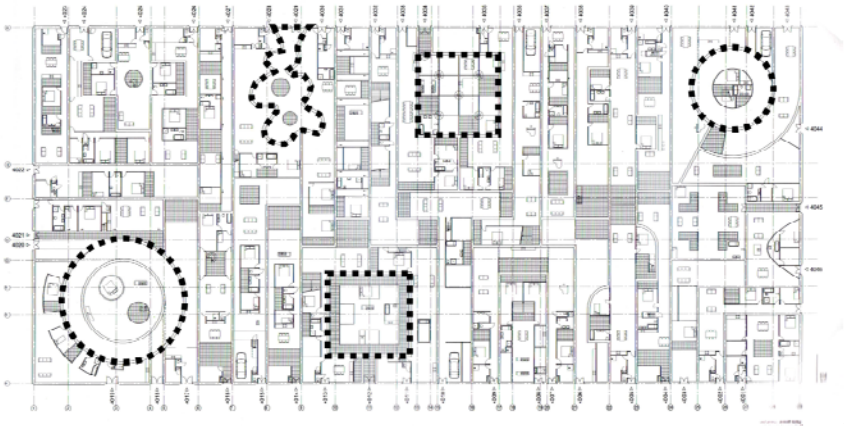


그림 55 Patio House의 관입요소(점선)

아가디르 호텔에서 또한 관입요소를 이용한 새로운 공간의 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수평적으로 배치된 호텔의 객실들이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직각 가로체계를 이루며 밀도있게 배치되어 있는 가운데, 직사각형과 원형의 로비가 그리드로 구성된 객실 가운데로 관입하여 그리드에서 형성하기 힘든 새로운 객실을 만든다. 이러한 면적인 관입과 더불어 전체 매트를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선적인 요소는 여러 객실과 동선에 걸쳐있어 그리드와 만나면서 생기는 역동성을 투숙객으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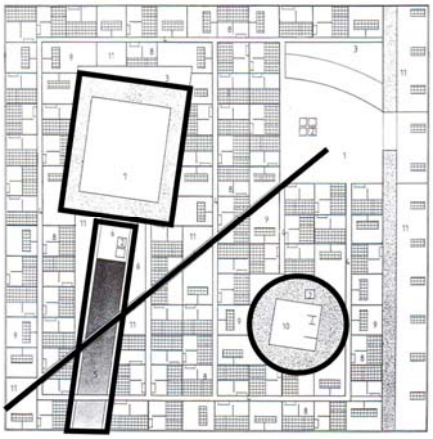


그림 56 아가디르 호텔의 관입요소(실선)

4.2.2. 수직적 보이드의 관통을 통한 공간의 통합

보이드의 관통을 통한 수직적 통합 또한 매트빌딩의 주요 건축어휘 중 하나이다. 수직적인 보이드는 층간의 경계를 완화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영위하는 사용자의 공간적 경험을 하나로 묶는 중간영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수직적 보이드를 통한 공간경험의 일원화는 앞서 언급한 크로아티아 현대미술관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드러나며, 그 중 하나로 넥서스 월드 집합주거를 들 수 있다. 1층부터 3층까지 각 층을 관통하는 보이드는 1층의 공공영역과 2층의 내부 커뮤니티를 위한 중간영역, 3층의 개인영역을 하나로 엮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걸친 공통된 영역이라는 인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각 층에서 달리 인식되는 차별화된 공간감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수직적 보이드는 이 건물을 경험하는 여러 유형의 이용자들의 경험을 하나로 묶어내고 있다.

이러한 수직적 보이드가 형성하는 빛과 그림자는 자칫 어둡고 음습한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매트 하부공간의 공간감을 개선하는 주요 건축어휘로 쓰인다. 앞서 본 넥서스 월드 집합주거의 1층이 그렇듯, EDA 집합주거의 하부 커뮤니티공간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건물의 1층은 주거로 진입하는 입구가 모두 모여 있는 일종의 로비이므로 이 공간이 가지는 중요성은 각 개별주거 만큼이나 매우 높다. 따라서 니시자와 류에는 넓은 매트 하부에 자리 잡고 있음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형성되는 어두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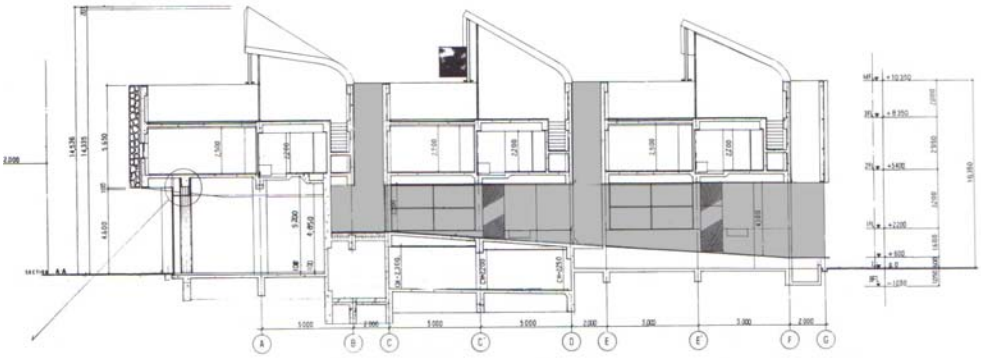


그림 57 넥서스 월드 집합주거의 경험을 통합하는 수직적 보이드

환경을 상부 매트에 뚫리는 수직적 보이드를 통해서 떨어지는 다양한 빛과 그림자를 이용하여 공간의 어두운 분위기를 차치하고 로비에 새로운 공간감과 풍경을 부여하고 있다. 보이드는 또한 하부의 로비와 상부의 단위주거와의 부분적 연결성을 통한 관계성을 형성한다.

4.3. 통합을 통한 새로운 공간의 구현

4.3.1. 흐려지는 경계를 통한 공간의 통합

단위공간의 다양화는 그것의 개방성에 대한 조정으로 강화된다. 개방성을 조정하는 방식은 주로 단위공간의 경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단위공간의 오프닝, 단위공간을 규정하는 벽의 재료 등을 통해 구현되며, 몇몇 사례의 경우 단위공간을 규정하는 벽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보인다.

단위공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EPFL 러닝센터를 들 수 있다. 이 건물에서 SANAA는 매트 위에 프로그램을 산개하여 배치하면서 곡선을 이용하여 그 크기와 형태를 다르게 함으로써 각 단위공간별로 차별화를 꾀함과 동시에 단위공간의 경계라 할 수 있는 벽을 투명하게 처리하거나 아예 없애면서 프로그램별 명확한 영역의 구분을 차치하고 모호한 경계를 만들어내었다. 따라서 프로그램 사이에 존재하는 매트는 자연스럽게 중간 영역이자 이동공간으로서의 특성을 갖게 되며, 프로그램을 영위하는 특정 단체 외의 사람들로부터 간섭을 용인하며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림 58 프로그램을 규정하는 경계가 없거나 투명하게 처리되어 있는 EPFL 러닝센터

VPRO의 경우 모든 프로그램을 매스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고정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열린 공간으로 처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건물에서 매스들은 매트 위의 열려있는 공간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략적인 영역을 형성하는 장치로 이용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용자는 각 공간에서의 이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공간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며, 그 영역의 확장과 축소에 있어서 고정된 공간보다 더 자유로운 특성을 가진다.

즉, 현대 매트빌딩의 단위공간은 경계의 능동적인 변화를 통해서 사용자 중심의 공간변화를 구현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매트빌딩에서의 능동성은 건설할 당시 모듈이나 공간에 변화를 주는 방식뿐만 아니라 건설 후 사용하는 도중 사용자에 의한 공간의 변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4.3.2. 선에서 면으로 발전하는 인프라스트럭처

그리드에 기반한 선형 동선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지는 팀텐의 매트빌딩과는 달리 현대 매트빌딩에서 극적으로 드러나는 새로운 건축적 기법은 면적인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판의 등장이다.

1995년에 지어진 FOA의 요코하마 페리 터미널은 건축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건물과 대지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일원적 개념을 실현하였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건물의 지붕이나 바닥판의 구분이 없는 인공적인 대지를 형성하면서 이질적인 요소와 프로그램을 하나로 융해시킨다.

그림 59 요코하마 페리 터미널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용을 연속적인 매트를 통해 해결한 건물로서 현대적 매트빌딩뿐만 아니라 랜드스케이프나 들뢰즈 이론에 비추어 보는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은 그 해석에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매트빌딩에서 보이는 판의 조작을 통한 새로운 공간의 형성이라는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라 할 수 있다.

건설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판을 도입함으로써 현대 매트빌딩은 프로그램간의 관계에 보다 더 자유로운 행태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일례로 EPFL 러닝센터를 설계하면서 SANAA는 전 층을 하나로 통합된 공간으로 형성하면서 매트를 형성

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이동하는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용자가 자신의 동선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 사이를 이동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간의 관계와 경험이 매트의 일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트 전체에 걸쳐 폭넓게 형성되며,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의 위치 또한 사용자의 선택에 따르기 때문에 임의적이고 동시적이다.

이러한 유동적인 매트는 EPFL 러닝센터처럼 단층으로 형성될 뿐만 아니라 접히고 움직이면서 다층적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연속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양과 경제성을 생각했을 때 수직적 적층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연속되는 매트를 이용한 연속적인 공간의 형성을 통해서 층별로 프로그램과 공간이 단절되는 건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매트를 형성한다.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크로아티아 현대미술관이나 Villa VPRO에서의 판은 램프와 경사로 연결되며 사람들의 이동에 따른 경험에 연속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경험은 이동 중에 수직적 단절이 표현되는 부분에서 연속과 단절이라는 상반된 개념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 공간 경험의 풍부함을 자아낸다.

그림 60 Villa VPRO에서 단절과 연속이 동시에 표현되는 부분

면으로 진화된 매트의 특성은 단위공간이 위치하는 지반으로서의 기능과 이동성이 구현되는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기능이 하나의 기법으로 엮이며 동시에 구현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엄중한 경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프로그램과 동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층과 층 사이의 관계가 밀접하고 유동적으로 바뀌었고, 군집이나 이동성 등의 팀텐의 이론이 구현되는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현하고 있다는 것에서 매트빌딩의 발전에 새로운 모멘텀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4.4. 건물 내부에서 나타나는 도시성

팀텐이 매트빌딩에서 군집과 네트워크를 기본적 원칙으로 삼은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오브제로서의 건축을 지양하고 도시적 특성을 건물에 도입한 것으로서, 도시성은 매트빌딩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있는 특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서 팀텐은 매트빌딩의 구성에 있어서 순환동선을 도시의 가로와 직접 연결하고 군집과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를 기존의 가로에 병치하여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 매트빌딩에서 기하학적 외관을 가지고 명확한 경계를 형성하거나, 대지를 규정하는 선을 이용한 매트를 형성함으로써 매트가 확장하는 것에 대한 목적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현대 매트빌딩에서는 이러한 직접적 연결과 확장을 시도하기보다는 매스의 확고한 경계를 구축하면서 도시적 맥락을 건축 안으로 들여오려는 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크로아티아 현대미술관에서 보여주는 Njiric의 태도는 이러한 현대 매트빌딩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Njiric은 자신의 설계의도를 밝히면서 이 미술관을 도시적 구성의 일부로 파악했다고 말한다. 그의 스케치를 보면 도시의 지면이 수직적으로 확장된 것으로서의 미술관이라는 기본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Njiric은 건물과 도시 사이에서 한정된 영역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경계를 이용하여 형식적이고 기능적인 거리분할을 처치하고 열린 공공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을 상정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기울어진 거대한 판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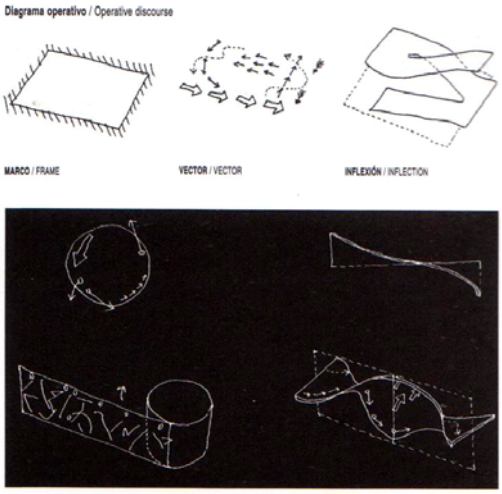


그림 61 크로아티아 현대미술관의 도시와의 연계 개념 다이어그램

이러한 도시성의 내재는 이전의 구성방법, 즉 이동 동선을 형성하고 그 주변으

로 매스 군집이 붙으면서 전체적인 매트를 형성하는 과거의 팀텐의 매트빌딩보다 현대의 판형 매트빌딩에서 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판으로서의 매트빌딩이 대지 위에 동선이 구획되기 전에 자연스럽게 건물이 형성되고 남은 부분이 자연히 동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 본연의 형성방식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 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근대의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건축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근대건축에서 상실한 만남과 경험, 이들을 통한 커뮤니티와 장소성의 형성에 초점을 맞춘 팀텐의 매트빌딩을 고찰하고, 현대 매트빌딩으로 분류되는 건물군에 대하여 과거의 매트빌딩에 대한 차별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매트빌딩의 이념을 계승하는 현대건축들을 팀텐이 상정하는 주제어, 즉 군집과 이동성, 변화와 확장, 도시의 건축에 맞추어 분석해보고자 했다. 이는 각각 단위공간과 그 구성방법, 네트워크, 보이드와 중간영역, 도시성을 의미하며, 과거 매트빌딩의 특성들이 현대 매트빌딩에 나타나는 방식을 확인하고 과거 매트빌딩의 한계를 극복하는 건축적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변화, 관입, 통합이라는 주제어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그 이념의 표현에 한계를 갖는 매트빌딩을 새롭게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매트빌딩은 과거 팀텐의 매트빌딩을 계승하는 건축으로써, 이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만남과 인식을 통한 커뮤니티와 경험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 매트빌딩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산개를 통한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가시화, 사회적 공간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중간영역과 보이드, 다양하게 교차되며 상호 인식과 경험을 촉진하는 이동공간의 네트워크를 건축적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도시공간과 건물 내부를 연계시킴으로서 건축과 도시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현대 매트빌딩은 과거 매트빌딩과는 달리 관입, 변화, 통합 등의 여러 방법론을 통해 일률적인 공간을 타파하고 새로운 형태와 특성을 지닌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공간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팀텐의 매트빌딩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현대 매트빌딩은 경계의 변화 또는 소멸과 같은 물리적인 방법론을 이용하기도 하는 반면, 공간을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여 파편화된 매스로 구성되는 매트빌딩과는 달리 다양한 사건이 동시적으로 인식되어 경험의 폭을 넓히는 효과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매트빌딩에 관한 연구에서 부족했던 차별화를 이루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현대의 매트빌딩을 고찰함으로써 이들이 구현하는 공간의 발현방

식을 밝혔다는 것과, 정량적인 분석이나 감성적인 분석으로 양분되는 기존의 연구로 한정되었던 매트빌딩에 대한 시각을 확대했다는 것에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현대적 매트빌딩의 사례가 기존 연구에서 현대적 매트빌딩으로 보았던 것을 재분석했다는 점이다. 이는 폭넓은 현대건축에서 매트빌딩의 사례를 포괄적으로 고찰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랜드스케이프 건축이나 들뢰즈 이론을 기반으로 한 라바 건축 등 현대적 매트빌딩과 같은 사례를 공유하는 유사한 건축개념에 대한 비교연구도 다각화되는 현대건축의 양상에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과제로서 폭넓은 사례분석을 통한 현대 매트빌딩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유사한 건축개념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성곤, 서양건축사, 기문당, 1996
· 손세관,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열화당, 2000, p315
· 이냐시 데 솔라 모랄레스, 이종건 역, 차이들: 현대건축의 지형들, Spacetime, 2004
· Le Corbusier, 이관석 역, Towards a New Architecture, 동녘, 2002
· W. Gropius, "Sociological Premises for the Minimum Dwelling of Urban Industrial Populations," and "Houses, Walk-ups or Highrise Apartment Blocks?" In The Scope of Total Architecture. New York, NY: Collier Books, 1962
· Jane Jacobs, 유강은 역,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그린비, 2010
· Alison Smithson, 이경찬 역, Team 10 primer, 태림문화사, 1991
· E Mumford, The CIAM discourse on urbanism, 1928-1960, Mit Press, 2002
· Case: Le Corbusier's Venice Hospital and the Mat Building Revival, ed. Hashim Sarkis. London: Prestel, 2002
· Frederic P. Miller, Agnes F. Vandome, John McBrewster, Team 10 : congrès international d'Architecture moderne, urbanism, Bagnols-sur-Cèze, Jaap Bakema, Giancarlo De Carlo, Aldo van Eyck, Alison and Peter · Smithson, Alphascript Publishing, 2011
· Alison Smithson, How to recognize and read mat-building
· Risselada, Max. Heuvel, Dirk van den, Team 10 : 1953-81, in search of a utopia of the present, Rotterdam, 2005
· Oscar Newman, New Frontier in Architecture, p147 재인용
· El Croquis: Rem Koolhaas/O.M.A. 1987/1992, El Croquis, Madrid, 1994
· El Croquis 114(II) Njiric + Njiric Arhitekti 1997/2003, El Croquis,

Madrid, 2003
· 妹島和世+西澤立衛/SANAA : works 1995-2003 = Sejima Kazuyo + Nishizawa Ryue/SANAA : works 1995-2003, 東京 : TOTO出版, 2003
· SANAA Houses : Kazuyo Sejima + Ryue Nishizawa, Barcelona : Actar/Musac, 2007

논문

· 남지현, CIAM 이후 아방가르드 도시주거이론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를 통한 성장개념' -Team X, GEAM, Archigram의 '자율성'과 '가변성'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론, 2004
· 장용순, OMA, MVRDV, SANAA에 나타난 매트-빌딩의 영향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1
· 이희봉, Team 10의 CIAM 탈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 건축역사연구 16호, 1998
· 오광석 외, 알도 반 아이크 건축에서 "사이영역" 개념에 관한 연구 - 1945년부터 1959년 사이의 전후 CIAM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8
· 김낭형, 신재억, Team X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도시이념의 건축적 적용을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8
· 송준엽, 심우갑, '기하학적 단위요소'의 적용방식에 의한 알도 반 아이크 건축의 공간 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3
· 이경호, 구영민, 알도 반 아이크의 '호혜성'개념에 대한 연구 - 사이와 이중현상 개념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9
· Y. Eren, A new kind of urbanism for all, Bilkent University, 2004
· Y. Eren, Exploring the potential of Mat-building for the creation of universally designed environments, The graduate school of natural and applied sicences of middle east thechnical university, 2004

Abstract

A study on the strategy of space formation of the modern mat-building

Lee, Jun Gu

Department of Architecture
Master Course i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Choi, Du Nam

The study of Mat-building verified the history and failure of modern architecture of which was based on both mechanical and functional understandings about human and society. In addition, theorized by Team 10, the Mat-building was designed to focus on the creation of community and place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people or events). Finally, it shows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between contemporary mat-building and Team 10's.

The subjects that were brought to the table by Team 10 in the last International Congresses of Modern Architecture (abbreviated to CIAM) meeting, cluster, mobility and change, expansion, and architecture of city – clearly show their focus. Therefore, the meaning of their intension would be clarified by analyzing Team 10's theories and discourses.

'Cluster' is the opposing concept to the functional and mega scaled mass. It expresses the idea to overcome personalization and isolation of people and to make the dense community focusing on residents. 'Mobility' is the argument that experience should be created by people moving and

meeting through spaces. The building which contains ‘Cluster’ and ‘Mobility’ could expand to the city and change it at the same time. It is one of the main contents in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architecture which is not just component in the city but the way of organization of the city. Based on the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iginal mat-building and how modern mat-building expresses them can be revealed.

Contemporary mat-buildings attempt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eam 10’s and to adapt diversifying society. They create new spaces by changing, penetrating, and integrating so that overcome the weakness of the Team 10’s mat-building.

The creation of new space through ‘Change’ derives a new spatial experience which existing mat-buildings did not have. It means the variation of forms and units or reversal of the programs between unit space and intermediate area.

‘Penetration’ means that disparate elements interfere in the special rules like grids so that can produce a new experience by creating irregular walls and spaces.

Finally new space through ‘integration’ refers to removing or weakening the borders so that various programs can coexist in the same space. It attempts to overcome the lack of continuity which almost all high-rise buildings contain.

In this way, modern mat-buildings make various spatial experiences by creating new spaces at the same time they succeed to the main idea and methodology of the Team 10’s mat-buildings.

Keywords: Team 10, Mat-building
Student Number: 2011-20607